



우수콘텐츠잡지
2023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3
VOL.237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팬텀 스타 워즈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P H A N T O M S T A R W A R S



길병민



이승민



박종수



신명근

지휘자 다니엘S김 |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 Orchestra)

2025. 3.16 (일) 오후 5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부산예술후원회 주관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 |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협찬 | (주)골든블루 Gmax 지맥스 K경동건설 예매처 | interpark(인터파크)

티켓 | R석 15만원 · S석 10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문의 | 010.3940.3060 · 010.2530.7568

문의 | 051)631-1377 www.bsart.or.kr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MARCH

3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경향아트 경향음악공쿠르 오전 9시 010-3580-7076 빛누리사진가회 정기회원전_내가본부신2(3층) 010-6280-5236
2 경향아트 경향음악공쿠르 오전 9시 010-3580-7076 빛누리사진가회 정기회원전_내가본부신2(3층) 010-6280-5236	3	4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5 문화가 있는 날 국악퍼포머 초청 UP!아 청청 오후 7시, 051)631-1377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6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7	8 SK 라뮤즈음악학원 SK라뮤즈 정기연주회 오후 3시 051)627-5002 010-7750-5052
9	10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2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3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4	15 한양음악학원 한양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오후 4시 051)612-1239
16 한국향토음악인협회부산지회 제8회 용두산가요제 예심 오후 1시 051)949-2468	1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8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9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0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1 부산문인협회 제1차 이사회_시민문예강좌 오후 3시 051)632-5888	22 올트랙 Next step vol2 오후 6시30분 010-4768-8840
23	24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5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26 문화가 있는 날_춘매 배김새 2025 을사년 춘매 배김새 새봄맞이 출판 오후 7시 051)631-1377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8	29 박미정 1st.오매사복寤寐思服 대금 독주회 오후 5시 010-4875-5529
30 부산국악협회 정기총회 오후 2시 051)644-5211	31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ART BUSAN MONTHLY VOL.237

2025 MARCH 3

CONTENTS

권두칼럼

08 차별 없는 예술문화 복지 _ 하형주

예서제서

- 10 부산예총 2025년 정기총회
- 12 2025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예감 ;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 16 예술의 흔적II
- 24 부산예술위원회 <팬덤스타워즈-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 26 제43회 부산연극제
- 30 제20회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 정기전
- 32 제19회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전
- 34 2025 사진나무숲 기획전 - 도시미니멀
- 36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 38 LOVE & PIECE: 부산시립미술관 x 도모현 전시
- 39 우암 오재수선생 백수연白壽宴
- 40 금정문화회관 - 웃음을 잃지 마세요

포토에세이

42 용푸라우 산악열차 _ 성현미



아동기 시절 _ Oil on canvas, 10호F

표지 _ 이강윤

·2023~2024 부산미술원로작가회
·2000 상상력과기호전(부산시립미술관)
·1988~2024 부산회화제(부산문화회관)
·2008~2024 열매전(부산시청전시실외)
·2011~2024 삶과작업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2019 갤러리조이 초대개인전 및 송혜수미술상 수상기념전



時雨일기

46 허퍼 _ 문경희

인물포커스 I

50 부산문인협회 신임 회장 박혜숙 _ 정혜주

52 부산무용협회 신임 회장 남선주 _ 정혜주

인물포커스 II

54 아이컨택 대표 양승민 _ 박준영

예술가열전 230

56 작가 최추자 _ 권오혁

손으로 쓴 문학

60 세종대왕의 나들이 _ 구옥순

들어다보기

62 문학/탁영완 시 「따로 늙는 노래」 _ 조현숙

64 영화/〈벌집의 정령〉 _ 손승웅

66 미술/ 디지털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 Loop Lab Busan'과
BMA 비디오 하이라이트 _ 정혜주

기획연재

68 건축과 서예IX - 불전사물과 서예와의 조화, 범어사 종루 _ 이현주

열린마당

72 힘내자 K-Art, K-Artist _ 김지호

74 예총·전시·공연 뉴스

79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3월 통권 237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5년 2월 25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디자인_ 두손کم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예술문화 복지

글 _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 참여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게 한다. 문화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8년 프랑스 샤를 드골 정부의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의 ‘문화 민주화’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프랑스는 조직상 처음으로 문화부를 설립하고 대중의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늘리고 자 지방 각지에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을 설립했다.

문화의 민주화는 1981년 미테랑 정권의 문화부 장관 자크 랑에 의해 ‘문화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로 계승되면서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자리하게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문화를 ‘누가 누리는가’에서 ‘누가 창조하는가’로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에서 각 지역으로 문화의 지방분권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즉 누구나 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소외된 대중도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 문화환경 발전의 개선을 이룬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화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정부 정책의 구심력이 되고자 했던 노력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모든 이들이 예술의 주체가 되는 사회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의 예술진흥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이하 ACE)는 ‘모든 이들에게 위대한 예술과 문화’를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이란 구호를 내걸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은 문화예술의 수월성과 창조성을 증시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소비하도록 한 목표 설정이었다. 이후 ACE는 2030년까지 ‘창조하자(Let's Create)’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예술문화를 통해 국가를 변화시켜 보자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에 ACE의 니콜라스 세로타(Nicholas Serota) 위원장은 “문화에 의해 변화된 국가를 창조함으로써 국민들 모두에게 활력과 영감을 주며, 삶을 풍요롭게 행복과 건강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식 전환을 공표했다.

우리나라의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부산시는 2020년에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제정, 선포해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이주민도 부산지역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강조했다.

오늘날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문화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05년 문화바우처라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관광 및 스포츠 분야까지 이용분야를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예술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활 깊숙이 예술문화가 스며들도록 노력 중이다. 예술치유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부산예술회관에서 매월 모든 시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가 있는 날’과 ‘점심 버스킹’ 등은 우리 도시의 모두가 예술을 창작하거나 향유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쉽게 즐기고,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는 더욱 심화되는 사회의 양극화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및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체육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강화이용권’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예술문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문화 복지국가를 형성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소망한다.

부산예총 2025년 정기총회

2025. 2. 20.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2025년 정기총회가 2월 20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부산의 예술문화 기반 확립을 위해 예술인들의 연대와 부산예총의 위상 확립을 강조한 오수연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는 공로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먼저, 각 협회별로 해당 임기를 끝내고 그동안 공로를 인정하는 특별공로상에는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이봉두,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김인숙, (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김갑용, (사)한국문인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이석래가 받았다. 공로상은 부산건축가회 임기택(부산국제건축대전위원장), 부산국악협회 김지원(이사), 부산무용협회 이화성(이사), 부산문인협회 윤기선(부회장), 부산미술협회 박다두(31대 부이사장), 부산사진작가협회 허승도(사업팀 간사장), 부산연극협회 김태호(이사),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나성우(부회장), 부산영

화인협회 전승호(감사), 부산음악협회 홍기정(현악분과위원장),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이미라(고문), 부산차문화진흥원 이기숙(이사)에게 돌아갔다.

2부에서는 2024년도 감사보고에 이어, ▶202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 개정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됐다.

부산예총은 2024년 [부산예술회관 합창단]을 창단하고 새로운 변화와 함께 부산예총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켰다. 올해는 부산시지원금과 기타후원금 등이 증액되고, 강연장을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비,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안)은 작년 105개에서 총 112개의 행사로 7개의 행사가 새롭게 기획돼 추진된다.

제64차 [사]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제16차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17:00 장소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 정기총회 기념 단체 사진 2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3 오수연 회장과 특별공로상 수상자 단체 사진(왼쪽부터 부산건축가회 이봉두, 부산국악협회 김인숙, 부산예총 회장 오수연, 부산문인협회 이석래, 부산무용협회 김갑용) 4 오수연 회장과 공로상 수상자 단체 사진(왼쪽부터 부산무용협회 이화성, 부산건축가회 임기택, 부산문인협회 윤기선, 부산미술협회 박다두, 부산사진작가협회 허승도, 부산국악협회 김지원, 오수연 회장, 부산연극협회 김태호,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나성우, 부산영화인협회 전승호, 부산음악협회 홍기정,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이미라, 부산차문화진흥원 이기숙) 5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강종관이 유영욱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6 부산음악협회 유영욱 회원이 질의하고 있다. 7 부산무용협회 김갑용 회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 ;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하는 부산예술회관의 문화가 있는 날 '예감'이 돌아왔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추석, 연말 별도)이면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감'을 소개한다.

UP이아 청청_국악퍼포머 청청

3/5(수) 19:00

국악퍼포머 그룹 [청청]은 '생기가 있어 맑고 푸르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시민들과 교류하여 근심과 걱정을 열어 미소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둔 단체이다. 한국의 전통과 창작 두 가지 요소를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구성하며, 관객과 하나가 되는 공연을 만들고자 한다.

2025 을사년 춘패 배김새 새봄맞이 출판_춘패 배김새

3/26(수) 19:00

춘패 [배김새]는 1985년 12월 부산 최초의 한국 춤 전공 자들로 창단된 민간 예술 단체로, 부산 지역 특유의 몸짓을 살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으로 동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밝히며, 예술적 추상성에 치



우치지 않는 구체적 표현과 상징, 그리고 은유로 우리 시대와 함께하여 왔다. 을사년의 새봄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신명을 지퍼 눈부신 생명의 힘을 불러오고 새롭게 태어나는 염원의 춤판이다. 살풀이춤을 모태로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느낌의 춤과 정적미를 담은 단아한 흥과 멋의 비장한 춤이 선사될 것이다.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_국제미디어 NS Band

4/9(수) 19:00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2022년 [BIG BAND], [JK BAND]와 [BLACK EAGLES]에서 활동했던 연주자들이 [NS(NEW START) BAND]를 결성하여 활동을 재개한다. 공연과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공연을 통해 관객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미꽃 가시, 카르멘_오페리움 한울

4/30(수) 19:00

[오페리움 한울]은 오페라 및 클래식 성악의 대중화를 위해 구성된 단체로, 14인의 성악가와 2인의 피아니스트, 한 명의 무대감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의 다재다

능한 능력으로 기획, 지휘, 음악감독, 연출, 무대감독까지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며 오페라부터 기획 연주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공연하는 단체이다. 장미꽃 가시 같은 위험한 팜프파탈의 여인 카르멘, 순수하고 집요하며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청년 호세! 남자는 사랑하면서 집착하고, 여자는 사랑하면서 자유를 추구한다. 너무나도 다른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장미꽃 가시에 비유해서 해설과 함께 오페라로 풀어본다.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_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6/11(수) 19:00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는 2013년 결성된 전문연주자들의 모임이다. 전문적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완숙기의 높은 연주 기량을 소유한 연주자들, 그리고 교수, 국내외 관악 전문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관악연주의 발전을 위해 후배 양성과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주단체이다. 예술성이 뛰어난 클래식 음악 교향곡, 서곡, 모음곡, 그리고 세미클래식의 곡들과 청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파퓰러 뮤직과 뮤지컬의 아리아, 가곡들을 연주한다.

꿈은 이루어진다_시선회

6/16(월) - 6/22(일)

[시선회]는 작품을 향한 열정으로 오롯이 한길을 걷는다는 취지로 창립됐다. 본 전시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소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단, 22일(일)은 오후 3시까지만 개방한다.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마블링 체험'과 '캠퍼스 그림그리기'가 준비되어 있다. 체험은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이틀간 하루에 2회(10:00~12:00, 13:00~15:00) 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당 20명만 모집한다.

Essential_부산아이디발레단

6/25(수) 19:00

[부산아이디발레단]은 몸의 언어로 올림과 감동, 심미적 가치를 전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꿈과 마음을 담은 단체이다. 발레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장면을 선보이며, 클래식 작품을 재해석해 관객과 소통하며 공감을 추구한다. 컨템포러리 발레 & 더블빌로 구성된 공연이다.



아이디발레단

BE CRAFT!_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

6/30(월) - 7/6(일)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는 부산에서 공예를 예술과 융합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예술단체이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공예 작가들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단, 7월 6일(일)은 오후 3시까지만 개방한다.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제로웨이스트 위빙'이 있다. 7월 5일(토)부터 6일(일)까지 이틀간 하루에 2회(13:00~15:00, 15:00~17:00) 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당 10명만(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모집한다.

법고창신_홍민수 도예전

7/28(월) - 8/3(일)

홍민수는 전통 도예에서 분청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와 전통을 아울러 연결할 수 있는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분청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의 간극을 줄이고 분청기법의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도자기로 공룡 가족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다. 8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이틀간 하루에 2회(11:00~12:00, 14:00~15:00) 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당 10명만 모집한다.

아띠클래식 미니 콘서트_아띠클래식

7/30(수) 19:00

[아띠클래식]은 클래식 발전을 지향하면서 기존의 정형화 된 공연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재미있는 방식의 공연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4인의 혼성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국민장르 트로트와 오페라, 한국 가곡, 영화 OST, 국악 크로스 오버, 디즈니, 뮤지컬, 가요, 팝페라 등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게 다양한 음악과 해설을 제공하고, 무대 특수 효과 장비 AI를 활용한 4K 배경영상을 통해 기존의 클래식 공연보다 훨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공연이다.

부산 사계의 미학_부산남사회 포토클럽

8/25(월) - 8/31(일)

[부산남사회 포토클럽]은 부산 남구 문화원 사진 강좌 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부산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내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사진 기초 교육 및 실습'이 예정되어 있다. 30일(토)부터 31일(일)까지 이틀간 하루에 2회(10:00~12:00, 14:00~16:00) 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당 20명만 모집한다.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뮤지컬쇼, 전화We북_극단 우릿

8/27(수) 19:00

2018년 창단된 극단 [우릿]은 '감동을 느껴 떨리는 상태에 있다'라는 '우릿하다'의 뜻과 같이, 매 작품 배우와 스태프, 그리고 관객과 함께 공연의 감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보이는 라디오 <전화위복>은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공연이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각자의 삶과 이야기들이, 서로에게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순간, 시공간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찾아온다. 관객의 다양한 고민과 걱정을 다시 되뇌게 하고,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위로와 에너지를 선사한다.

시화전_부산문인협회

9/8(월) - 9/14(일)

[부산문인협회]는 시와 낭송, 시화 전시 등 재능을 함께 나누는 부산 문인들의 모임이다. 이번 시화전은 지역 문인들의 시화를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시와 그림을 통해 감성적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회는 8일(월)부터 14일(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단, 14일(일)은 오후 3시까지만 개방한다.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시 쓰기 심리 치유 및 시낭송, 간편 시화 만들기'가 있다.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이틀간 하루에 2회(11:00~12:00, 14:00~15:00) 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당 10명만 모집한다.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_진사우회

9/22(월) - 9/28(일)

[진사우회]는 1977년 4월 12일 창립된 이후로 해마다 전시회를 개최해 온 몇 안 되는 부산의 대표 사진 동우회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준 높은 결과물을 타인에게 공개하여 창작 의도에 공감을 유도하고 관람객들에게 평가받아 발전하고자 한다.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단, 28일(일)은 오후 3시까지만 개방한다. 예



진사우회 회원전

술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 사진에 스마트함을 더하다'가 준비되어 있다.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이틀간 하루에 2회(10:00~10:30, 15:00~15:30) 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당 10명만 모집한다.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_드 콤마

9/24(수) 19:00

[드 콤마]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현악기 전공자로 구성되어 2013년 창단, 2019년부터 세트 드럼, 국악의 추가로 콜라보레이션 음악의 선두 주자로 활동 중이다. 클래식, 영화음악, 드라마 OST, 대중가요 등 대중들의 귀에 익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대중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감동을 주고 있다. 고전음악부터 시작해서, 현대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대중들의 귀에 익은 레퍼토리를 연주하여 우리가 지나쳐 왔던 음악들을 새로이 편곡해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기존의 클래식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적 접근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음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연을 지향한다.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_영포레컴퍼니

10/29(수) 19:00

[영포레컴퍼니]는 클래식 음악 창작을 기반으로, 청년 작곡가와 청년 연주자들이 기존의 클래식이 아닌 새로운 클래식을 선보인다. 클래식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일상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술문화를 만들고자 활동하는 단체이다. 「피노키오」라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경험하고 가족 단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이다.

문화의 교차로에 선, 손가락 젓가락_이바디예술단

11/26(수) 19:00

[이바디예술단]은 1994년 창단되어 전통 악, 가, 무와 창작 음악을 융합시켜 공연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단체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과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외 교류 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음식을 나누는 경험은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본 공연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표현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예술의 흔적 II, 원로 예술가들의 연륜과 혜안으로 지역 예술의 내일을 짚어 본다

‘예술의 흔적’은 2024년 11월 스무 명의 원로 예술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2월 18일에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원로 예술가 58명을 초대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남겼던 예술가로서의 흔적을 다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예총 산하의 협회 12개 중 9개 분야 원로 예술가들의 인터뷰 기록은 예술의 흔적 행사장에서 대략 1시간가량 영상을 통해 상영됐다.

이번 행사는 원로 예술가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을 공유하고, 예술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창작 활동의 방향을 짚어 보기 위해 기획됐다. 원로 예술가들은 정체된 지역 예술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했으며, 그들의 생생한 예술의 길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학들에게 전하는 바람도 이야기를 나눴다.

예술의 흔적 영상에는 ‘원로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급변하는 환경 속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마음’과 ‘장르의 발전과 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르를 이끌어 나아갈 후학 예술가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원로들의 연륜과 혜안을 담았다. 지난 2월호에 이어 원로 예술가 9분의 고언을 싣는다.



건축_이상준

건축_교수 이상준

동서대학교 명예교수, 국제건축문화제 창립멤버, 꿈다락토
요건축문화학교 부산지역책임자, 부산시건축심의위원, 도
시정비심의위원, 향만청건축심의위원 등

전국 대학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가 900만 권을 넘어
섰고, 이는 지식 전수로써의 텍스트 도서가 이제 컴퓨터 쪽
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
결에서 인간이 패배했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다. 대
학생들도 도시 건축 설계 과정에서 AI의 인공지능 생성기
인 빙, 델리, 스테이블 디퓨전 등에서 설계 이미지를 구현하
는 시대로 바뀌었다.

건축은 복합 예술이다. 픽셀의 직관적인 요소에 건축 법
규, 인문, 역사, 환경, 조경, 도시 등의 벡터적인 요소가 모아

고, 작가의 주관, 사유, 감각, 창의 등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것이다. 복합적인 요소인 벡터마저도 플랫폼에 저장되고 있
는 요즘, 건축하는 학생들의 AI 이용은 수월하다. 이는 AI가
인간의 지능 분야를 능가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멀티모달 인터랙션 시스템에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인
터치스크린, 음성 인식, 제스처 인식, 그림 인식 등 여러 감각
기관을 망라하여 사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 교감하도록 진
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컴퓨터, 핸드폰 화면 대신에
안경, 손목 시계, 나아가서 의도적인 벽면, 공중 등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건축가로서 우리는 보다 오픈되고 자유롭고, 또 창의적인
사고와 함께 에너지이직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
다. 젊은 건축 학도들은 AI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학
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악_국악민요 신명언

신명언국악원 원장,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선소리산타령
분과장,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향두계놀이 이수자, 무
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부산남구지부장

부산국악협회에서 선소리산타령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소리산타령은 1968년도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이 되었지만, 일반화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
다. 국악협회에 와서 선소리산타령을, 공연을 통해서 꾸준



국악_신명언

히 보여드리고 있다. 운영하는 학원에서 선소리산타령을 보급하고 경기 소리와 서도 소리를 지도한다. 경서도 소리를 뒷받침하는 장구 지도도 함께한다.

나는 대학에 다니지 않았다. 유년 시절 어머니의 창부타령을 듣고 자랐고, 늦깎이로 국악에 입문했다. 그런 연유로 무대를 통해서 관객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생활 속에 젖어 들어야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다고 생각한다. 국악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대학, 복지센터 등 생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자들은 경로당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민요와 장구 공연으로 생활 속에 국악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자란 손주들이 국악을 듣고 귀에 익어 익숙해지고, 나아가 소질을 발견해 국악인이 되는 바람을 가져본다. 국악 전문가보다는 일반 대중들을 지도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활 속에서 국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유튜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쌍방향 소통 채널로 상대방과 공유하며 공부하고 있다. 젊은 국악인들은 다른 장르와 협업해 국악을 변형시켜서 공연을 많이 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국악은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보여주는 것이 첫째이고, 그다음 음향(소리)이고, 세 번째가 재능이라 생각한다. 창의적인 것을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젊은 국악도들이 너무 이질적인 음악과 혼합할 때는 국악이 퇴색되는 걸 느낄 때도 있다. 너무 지나쳐 국악의 본질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때도 있다.

우리 젊은 후학들이 국악의 전통적인 것을 살려내면서 아름답게 타 장르와 융합하며 창의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여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공공시설에서 국악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전통 음악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후원도 기대해 본다.



무용_김은경

무용_한국무용 김은경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역임, 부산·경남 문화재위원 역임, 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 지회장 역임, 도솔천무(2002), 광수무(2001), 개천무(2000), 이름났(1997), 할미꽃각시꽃(1995), 흑사리(1993), 한밤춤(1991), 像(1990), 산자를 위하여(1998), 곡두질(1986) 외 활동, 현) 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고문

1948년도에 강태홍 문하에서 한국 고전무용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부산 춤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2년도에 부산무용협회 창단 멤버로, 선친 김동민 선생님과 함께했다. 지

금은 부산 춤 정체성을 살려가는 일을 하고 있다. 부산 무용은 전국을 대표하는 춤이다. 전통 예술에서 창은 호남을, 춤은 경상도를 친다.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경상도 동래, 즉 부

산을 자타가 인정하는 춤의 고장이라고 여겨왔다.

1950년도 전후로 부산의 춤은 르네상스라 할 정도로 번성기를 맞았다. 이후 1979년도부터 신라대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5개 대학에 무용학과가 개설되면서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1985년 이후로 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로 차츰 쇠퇴하면서 무용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공립 무용단이 있지만 기회의 문은 좁다. 현재는 한 대학에만 무용학과가 유지되고 있다. 지금 무용계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부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끈기와 인내를 하며 노력한다면 잘해낼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한다.

모든 예술이 그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해 관객들이 감동하는 작품을 만들고 춤을 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순간적인 것에 집착해 감동의 생명이 짧아진다. 자기 장르의 춤이 가진 정체성과 기본에 충실한 바탕을 두고 그 시대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감동의 폭을 높이는 길이다. 그때그때 순간적인 정서에 너무 민감해하는 것이 조

금 걱정스럽다.

현재 부산 무용계에는 원로 무용가가 없다. 부산 춤의 정체성을 전해 줄 스승 내지는 멘토가 없다. 과거에는 원로와 스승이 많았으나 작고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 살아계신 한두 분 정도여서 젊은 세대들은 각자도생의 처지에 놓였다. 나아갈 구심점도 없어 응집력이 약화하고 있어 부산 무용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부산에서 유능한 예술가들이 자리 잡기 힘들어 외부로 떠나는 이런 현상은 안타깝다.

후배 예술인들은 무대에 설 때 경력 쌓기보다 예술의 본질에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춤은 인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특성을 살리는 외형적인 비주얼도 중요하다. 조금 더 깊이를 가지고 춤에 접근해야 한다. 젊은 후배 춤꾼들이 자기 충족과 관객의 감동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춤의 원리 연구에 에너지를 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인_김석규

문인_시 김석규

196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 현대문학 청마 유치환 추천으로 등단, 80여 권의 시집 간행, 한국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회원, 경상남도 문화상, 현대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한국시학상 수상, 『시와 자유』 동인, 현) 부산문인회 회원

문학의 장르는 시, 시조, 동시, 아동문학,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 다양하다. 최근 들어 시와 수필 장르에 활동하는 문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 외 장르인 동시, 동화, 희곡, 평론 분야

등에 활동하는 부산의 문인들이 비교적 희소하다. 시나 수필 장르에 편향되어 문인들이 양산되면서 문학 작품의 질이나 수준의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이나 변별성이 희박해져 작자의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어느 사람 작품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다. 문학이라는 것은 아

주 독특한 개성적인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어느 사람이 쓴 건지 변별이 안 될 정도인 것은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별히 성찰해야 한다. 작품만 보고도 어느 작가가 쓴 작품인지 확연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보기가 요새는 참 어렵다. 문학이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신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데 앞장서

고 노력해야 하는 예술 장르이다.

문학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시대와 사회에 투철한 작가나 문학 정신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한다. 특히 사회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문학인들은 새로운 물줄기를 불어넣는 한 줄기의 신선한 샘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술_정태영

미술_서양화 정태영

부산국립사범대학 미술과 졸업(1960), 부산70년대작가전(용두산타워미술관), 독일 아트베를린미술관 초대전, 2017한국미술협회전(예술의전당), 100인전(서울글로벌호텔전시장), 부산회화제, BFAA국제아트페어, 창작미술인협회전, 아름다운동향전, 한새갤러리개관 초대전,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현) 한국미협, 부산미협 원로작가, 부산사행회 원로작가, 전업작가회 고문,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청소년 시절 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예술에 대한 감각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지금까지 소신껏 작품에 임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토백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6회 정도 개인전을 열었다. 부산대 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서 교사 생활로 36년간 후학을 지도했다. 정년 퇴임 후 금정구 남산동에서 개인 전시장 '테스 갤러리'를 개설하고, 나름대로 지역 문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요즘 화가들이 급변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자부심과 끈기가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화가들은 당당히 예술가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다. 나이가 표현 기법에도 분칠하고 인기 위주로 하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 아쉬움이 든다. 그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도 많다. 그리고 너무 빠른 현대적 감각을 따르다가 전통의 기본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최근 들어 아쉬운 것은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사라지는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나도 사후에 작품을 불에 살라야 할지 아니면 어디에 기증하느냐 하는 고민을 한다. 지난 시대의 원로 화가들 작품을 보관하면서 전시도 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변두리보다 시민들 왕래가 많은 시내 중심가에 마련되어 적어도 하루에 몇백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부산의 예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숙제이다.

후학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가 따른다고 격려해 주고 싶다. 우리 예술이 시대를 앞서가야 하는데 지금 뒤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따라가는 현상은 예술에 관한 관심이 적어서 나타난다. 지난해 부산미술대전 참가 작품 수도 많았고, 작품 수준도 높았다. 앞으로 젊은 작가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부산

시와 예술단체 등 우리 사회가 관심을 더 가지고 지원하고 후원하면 부산의 색깔로 예술 활동을 하는 도시가 될 것이

라 기대해 본다.

사진_최부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17대, 제23대 이사 역임, 부산광역시 문화상(2017), 제32회 한국예총예술문화상 대상(2019), (사)한국사진작가협회창립60년 특별공로상 수상(2022), 흑백사진 초대전(2014), 사진전 '생과 死'(2018), 사진전 '옛생활'(2023), 제23회 부산예술대상, 현) 최부길사진연구소 대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

지금 젊은이들은 사진 폭탄을 맞고 있다. 사진작가가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도 되고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 시대가 적잖게 낯설다. 사진작가라는 이름을 쓰려면 자기 사진을 남기고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는 게 기본이다. 나아가 사진작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상당한 촬영과 공부가 따라야 한다.

작가는 오랜 시간 인내와 고통을 거쳐 사진을 촬영하고, 피사체를 보고 가장 최고의 조건을 담아야 한다. 45도의 광



사진_최부길

선을 써야만 피사체의 입체감이 살고 충분한 작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은 엄청난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면서 너무 난발하고 쉬워져, 작품으로서의 사진은 역설적으로 우려풍스럽고 걱정스럽다. 젊은 후학들은 사진을 촬영할 때 작가라는 개념을 갖고 내용과 충분한 소재 발굴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연극_김문홍

연극_창작평론 김문홍

『한국문학』 제1회 신인상 중편소설, 『소년중앙』 동화 당선(1976), 소설집(6권), 희곡집(6권), 동화집(35권) 등 60여 권 간행, 부산시문화상, 부산예술대상, 이주홍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등, 2014년부터 《김문홍희곡상》을 제정해 시상해 오고 있음, 현) 부산공연사연구소 소장

연극계에서 극작, 희곡 창작과 연극평론을 하고 있다. 연극을 70년대부터 시작해 현재 50년이 넘었다. 연극계에서 처음 배우로 활동했고, 그다음에는 연출을 했고, 80년대에 첫 희곡을 발표해서 공연하면서부터 계속 희곡을 써오고 있다. 그동안 창작 희곡 작품을 35편 정도 공연을 했고, 희곡집도 6권 발간했다. 연극평론 활동을 하면서 4권의 평론집을 출판했다.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인데, 우리는 사람의 뇌, 사람의 지능을 기계화시킨 인공지능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연극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줄거리인 서사는 할 수 있어도, 인간의 내면적인 섬세한 감정과 심리 영역까지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너무 AI 환경에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AI는 다루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AI 활용 윤리와 가치를 위해 인류의 평화나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닌 데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협약 같은 게 필요하다.

연극은 무대 예술로 한 번 공연하고 나면 사라지는 일시적

이고 허망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극 하는 사람들은 연극을 하는 데에만 너무 급급해서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연극을 왜,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수많은 연극이 공연되고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결국은 사진으로만 남는다. 연극인들은 연극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만드는 것보다는 연극을 예술적으로, 그리고 관객을 위한 재미도 살리는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연극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작품이 아닌 연극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작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 의미이다.

연극은 돈이 되는 예술이 아니다. 젊은 후학들에게 연극계에 소신과 목적을 가지고 빠져들었다면 힘들고 혼들릴 때 '왜 연극을 하는가'라는 초심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다. 첨단 디지털 환경에서 연극의 본질적 목적과 기능을 되새기는 일이 연극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예술가의 진정한 임무와 태도라고 생각한다.

연예_작사 김무영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연예협회 총괄운영위원장
장, 20년간 현인가요제 집행위원장

요즈음 들어 K팝, K트롯 등으로 세계가 우리 예술문화를 즐기고 있다. 특히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K팝과 K트롯을 배우고 함께한다. 예술인 선배들은 6·25 한국전쟁 기간 그 힘들고 어려운 피란 생활 중에도 「굳세어라 금순아」 같은 노래로 위로하면서 대중가요의 역사를 써 왔다. 그 노래들을 지금까지 같이 즐기고 있고, 젊은이들도 그 시절의 애환을 되살려 노래 부르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후배들이 옛 선배들이 닦아온 길을 이어서 더욱 빛나게 이끌어 주길 바란다. 현인 가요제를 20년간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수를 배출하기도 했다. 부산연예협회에서는 힐링가요제, 청소년가요제, 실버가요제 등을 통해 가수를 배출하고, 그들이 현역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에 가야만 출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서울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발탁되어서 인기를 얻고 활동할 수 있다.

연예 활동을 지망하는 젊은 후배들은 예술인의 기질을 살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꿈은 스스로 만들어 갈 때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자기에게 찾아온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명언을 챙기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악_최삼화

음악_작곡 최삼화

부산음악교육연구회 회장 역임, 부산작곡가협회 회장 역임, (사)부산음악협회 회장 역임, (전)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예체능대학장 역임, 미국텍사스주립대학 연구 교수, (현)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 한국창작합창21 고문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10년 전에 퇴직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 예술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안긴다. 동시에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새롭고 다양한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여건들을 활용해서 예술의 행위를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 좋은 기회이고, 더없이 좋은 시대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다.

많은 예술인이 AI시대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예술 행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것들은 확장성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문명과 문화의 다양한 도구들을 지혜롭게 활용을 한다면 우리들의 예술 행위의 스펙트럼이 넓어

지고, IT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라는 생각이 앞선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음악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시작하면서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자!'라는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택한 데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 말하고, 존경의 찬사를 보내고 싶다.

/ 정리_편집실

부산예술후원회

팬텀 스타 워즈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2025. 3. 16.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신명근



길병민



이승민



박종수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부산 출신 청년 성악가들의 무대 <팬덤스타워즈-부산청년 봄을 깨우다>를 봄의 계절인 3월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난다. 이번 공연은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예술후원회(회장 강익구)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의 공동주최로 '클래식 대중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팬덤스타워즈-부산청년 봄을 깨우다>에는 골든 보이스로 오페라, 트로트, 뮤지컬까지 무대를 넓혀나가는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과 팬덤싱어4에서 활약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리톤 이승민,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가수로 데뷔해 2022년 이탈리아 산레모음악제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박종수, 트로트의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으며 다재다능함을 선보이고 있는 신명근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뮤지컬과 영화에 나온 클래식을 망라해 대중성을 강화한 다채로운 곡들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영화 <하이랜더>의 OST 「New York New York」과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대표곡 「이룰 수 없는 꿈」을 신명근의 탄탄한 목소리로 감상한다. 이승민이 「벳노레」와 「Se ho da dirla avrei molto piacere」를 선보이고, 박종수가 「chitarra Romana」, 「you raise me up」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길병민이 귀족적이고 고급스러운 목소리로 대표곡 「Parlami d'amore, Mariù」와 「Granada」를 노래한다.

2부에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의 뒤를 쫓는 자베르의 심정이 담긴 「Stars」와 로맨틱하고 애절한 노래 「Quando Quando Quando」를 신명근이 부르고, 팬덤

싱어에서 남성미 넘치는 파워풀한 보이스로 재탄생시켜 사랑받은 「E' mezzanotte」와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Largo al factum」을 이승민이 선보인다. 빅토르 위고의 고전 소설을 원작으로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성당들의 시대」와 「Champions」는 박종수의 무대로 꾸며진다.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OST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의 밝고 신나는 느낌의 곡과 「The Toreador Song」을 길병민이 숨죽이게 하는 강한 카리스마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에는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United Korea Orchestra}가 참여한다.

예술후원회에서 선정한 4명의 청년 예술가는 부산 출신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겸비한 성악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종 매체와 전국을 무대로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부산 클래식 문화 저변 확대와 후배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예술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부산예술후원회는 2022년 출범해 2023년 '부산청년작가 해외탐방'과 2024년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in 김해공항', 청년 예술인 후원을 위한 'fun_인연'전을 개최했으며, 올해도 <팬덤스타워즈-부산청년 봄을 깨우다>를 시작으로 부산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예술인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문의_010-5528-3736 / 편집실

연극도시, 부산 제43회 부산연극제

부산의 연극을 한자리에 모아, 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43회 부산연극제(예술감독 최용학)가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영화의전당, 백양문화예술회관, 용천소극장 등 부산 곳곳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연극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부산 청년 연극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청년 연극인 합동 공연을 새롭게 선보인다. 부산 연극인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카데미 섹션을 신설하고, 시민 평론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처음으로 해외 우수작을 초청해 부산연극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교류에도 나섰다.

| 섹션 Busan_부산을 대표하는 정회원 극단의 창작 초연 신작 섹션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손, 부채〉

극단 | 따뜻한 사람

일시 | 4. 8.(화) ~ 9.(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은실은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버스정류장에서 분례와 대화를 나누고, 떠난다. 홀로 남은 분례는 은실이 두고 간 부채를 펼쳐보는데, 목련과 나비가 그려져 있다. 한참 동안 바라보는 분례. 과연 분례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였을까?

#시대의 아픔 #기다림과 이별

〈대문 앞의 고로케〉

극단 | 극단이야기

일시 | 4. 15.(화) ~ 16.(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한국 전쟁 후 두 아이와 함께 부산에 피란 온 엄마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일본인 공동묘지에 자리 잡는다. 하필 그곳은 아홉 살에 세상을 떠난 나나코의 묘였는데. 이사 온 첫날부

터 엄마와 귀신의 싸움은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며 인정하게 된다. 이후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나나코도 이곳을 떠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공존의 삶

〈꽃피는 정거장〉

극단 | 극예술실험집단 초

일시 | 4. 18.(금) ~ 19.(토) 오후 7시 30분

장소 |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꽃피는 정거장〉은 현대와 과거,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버스 정류장을 배경으로, 각 시대의 아픔을 품은 인물들이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삶의 방향을 잃은 춘형은 역사적 사건 속 희생자들과 조우하며 자신의 상처와 사회의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의미 #희망과 연대

| 섹션 Unique_부산 극단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소극장 공연 레퍼토리 섹션



〈갈림길에 선 여자〉

극단 | 옆집우주

일시 | 4. 4.(금) 오후 4시 / 7시 30분

장소 | 용천소극장

부산연극제 참가작 〈갈림길에 선 여자〉 공연 1시간 전. 지영은 깜빡거리는 조명 하나가 몹시 거슬린다. 하지만 아무도 조명에 관심이 없고, 급기야 낯선 누군가가 극장에 난입하는데... 공연 시간이 다가온다! 과연 연극은 무사히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생활밀착형 사투리 #실제상황

〈제10층〉

극단 | 극적공동체 고도

일시 | 4. 11.(금) 오후 4시 / 7시 30분

장소 | 용천소극장

어느 날, 9층 건축 회사에 나이든 사내가 찾아온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지만 문이 잠겨 있다며 그 문을 열 수 없는지 묻는다. 이유인즉슨 10층에서 누군가 거울로 빛을 반사해 장난을 친다며 그놈을 잡아 혼쭐을 내기 위험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건축 회사의 직원은 이 건물은 총 9층이며, 위층은 옥상이라고 설명한다.

#무한한 상상력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뮤지컬 복근이 필요해〉

극단 | 공연예술단체 반올림

일시 | 4. 6.(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용천소극장

학교에서 공식적인 왕따 영철은 상진과 진상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하며 지쳐만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학생 복근과 DVD방 알바생 재인을 만나게 되고, 셋은 기상천외한 복수 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복수의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하다. 좌충우돌! 코믹한 여정 속에서 이들은 진정한 용기와 우정을 배우며,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유쾌한 복수 #치유의 여정 #웃음과 감동

〈그 곳_chapter1. 오래된 집의 회전목마〉

극단 | 예술집단 하우

일시 | 4. 13.(일) 오후 2시 / 6시

장소 | 용천소극장

오래된 집에 담긴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에피소드. 각 에피소드 속 인물들은 자신만의 회전목마를 탄 듯,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과 관계 속에서 산다. 그리고 그 시간은 끝을 알 수 없으리만큼 계속된다. #2024 제11회 김문홍 희곡상



예술집단 하우_그 곳_chapter1. 오래된 집의 회전목마

| 섹션 Stage

▶ 국제교류 공식초청작 섹션



베트남 호치민시 연극협회_동지

〈Homo Dramatics! 호모 드라마틱스〉 & 개막식

극단 | 부산연극협회

일시 | 4. 3.(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제 43회 부산연극제 개막 기념 공연 및 개막식. 부산의 전통연희인 들놀이로부터 1983년 전국연극제 개최 이후 대한민국의 연극 역대 대상작까지 부산연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담는다.

〈DONG CHI (동지)〉

극단 | 베트남 호치민시 연극협회

일시 | 4. 5.(토) ~ 6.(일) 오후 4시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베트남 호치민시 연극협회 희곡 공모에서 수상하고 제1회 호치민시 연극제에서 상연되어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전쟁기부터 평화기까지, 호치민 군인들이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같은 부대에 속해 함께 열망하고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동아시아 문화 연극 #해외 우수작 초청 공연

〈어둠상자〉

극단 | 극단 누리에

일시 | 4. 9.(수) ~ 10.(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황제의 굴욕 사진을 찾아라! 대한 제국 말기, 미국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던 고종은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를 융숭히 대접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연민을 기대하며 자신의 사진을 선물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딸 앨리스는 사진 속의 고종에 대해 “황제다운 존재감은 없고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이라고 혹평한다. 이후 고종은 그 사진을 찍었던 황실 사진사 김규진에게 사진을 찾아 파기하라는 마지막 밀명을 내리게 된다.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진을 찾아 없애야 하는 사진사 김규진 가문의 세대에 걸친 고난에 찬 분투가 시작되는데...

#2024 부산연극제 섹션 Boom! 선정



배우참고, 워 아이니?

▶ 부·울·경 연극협회 우수 소극장 공연 초청 색션

〈Play-back, 100, Back-stage〉

극단 | 부산 청년 연극인 합동 공연

일시 | 4. 12.(토) ~ 1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 청년 연출가 공모로 선정된 4명의 연출가가 부산 청년 연극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플레이-백 시어터 방식으로 100명의 청년 연극인들과 함께 만들어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백스테이지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는 #장소특정형, #프롬나드, #이미시브 인터랙티브 형식이 복합된 공연이다.

〈흑백다방〉

극단 | 경남 극단 이루마

일시 | 4. 7.(월) ~ 8.(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소극장 6번출구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다방 주인. 얼마 후 갑작스레 내린 소나기를 맞은 손님이 들어온다. 일견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손님, 다방 주인은 원래 계획대로 상담을 진행하지만,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그렇게 진행되던 상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치밀한 구성 #밀도감

〈워 아이니?〉

극단 | 부산 극단 배우창고

일시 | 4. 14.(월) ~ 15.(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소극장 6번출구

가진 것 하나 없는 남녀 한 쌍이 운명처럼 만나 작은 집을 마련해서 살게 된다. 허름한 집이지만 누구보다 행복하다. 각종 쓰레기로 가구를 만들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집이 무너진다. 밖은 전차 소리와 군인

들의 발소리로 가득하고 지속적으로 폭탄 소리 같은 굉음이 난다. 부부는 살기 위해 발악하기 시작한다. #2024 작강연 극제 대상 #2025 부산국제연극제 글로벌 익스체인지 루마니아 바벨 F.A.S.T. 초청



울산 극단 물의진화_엄마 소풍가자

〈엄마 소풍가자〉

극단 | 울산 극단 물의진화

일시 | 4. 17.(목) ~ 18.(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소극장 6번출구

팔순의 엄마와 오십 중반의 딸이 알콩달콩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과거 이야기를 자주하고 이상 행동을 한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딸은 엄마에게는 아니라고 하얀 거짓말을 하지만 점점 기억이 없어지는데……. #치매 #모녀 #끈끈함 #애뜻함

부산연극제에서는 시민심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시민평론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아카데미 소속 시민은 7개의 경연 작품을 관람한 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 비평작에는 소정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연극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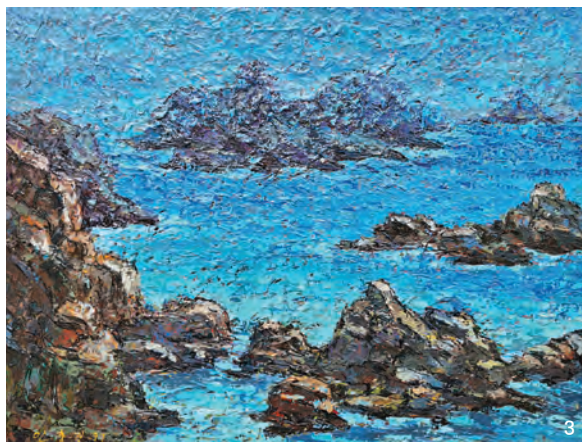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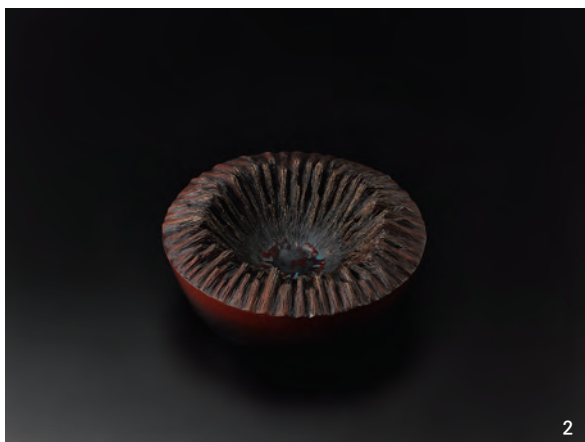
문의 051)645-3759 / 편집실



제20회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 정기전 환경에 대하여

2025. 3. 10. ~ 15. 부산시청 제2·3전시실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회장 정인성)가 3월 10일부터 6일간 부산시청 제2·3전시실에서 제20회 정기전 '환경에 대하여'를 개최한다. 100여 명의 부산의 미술인들이 한데 모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와 유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환경미술협회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기전을 이어오고 있다.



- 1 정인성_환경에 대하여, Oil on canvas, 10호P
 2 홍찬효_시간여행, Ceramic
 3 이충길_물운대, 혼합재료, 10호P
 4 송대호_계림의 가을, Oil on canvas, 10호P

23년째 활동해 오고 있는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환경문제를 예술로 접근해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한다.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각자의 성향과 작업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정인성의 「환경에 대하여」는 새파란 하늘과 바로 아래에 자리한 녹음이 진 들판에 수 놓인 분홍빛 꽃이 조화롭게 감상 되어 환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한다. 송대호의 「계림의 가을」은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절정에 이른 전경으로 풍성하고 빛나는 장면이다. 그림 속의 두 사람과 가옥은 정겨움이 묻어난다. 이충길의 「물운대」는 혼합재료를 사용해 물운대 바다의 풍경을 재현했다. 독특한 질감이 특징

적으로 푸른 바다와 바위의 거친 질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각 작품 속의 인물들은 주인공이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로 등장한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주범은 바로 사람이다. 심각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의 피해는 결국 사람과 자연의 동식물에게 돌아가 어려움을 안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열린 '환경에 대하여' 전시회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문의_010-4842-6422 / 편집실



제19회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전 삶을 담은 삼색전

2025. 3. 24. ~ 29. 부산시청 제2·3전시실
3. 25. ~ 30. 금련산갤러리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회장 이순이)의 제19회 정기전 '삶을 담은 삼색전'이 봄비가 세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절에 부산시청 제2·3전시실과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인연을 주제로 한 인물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풍경화, 소소한 일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정물화까지 삼색의 이야기를 전한다.



- 1 이순이_창가의 휴식, Watercolor on paper, 54×72
- 2 임종옥_휴식, Watercolor on paper, 12호 변경
- 3 정용근_생의 단면, Watercolor on paper, 20P
- 4 김동순_홍학, Watercolor on paper, 76×53

부산을 넘어 지역을 넓혀가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온 부산 미술협회 수채화분과는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 100명과 초대작가 20명, 비회원 100명이 참여해 총 220명(예정)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대규모의 전시인 만큼 전시 공간을 확장해 회원들의 작품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비회원의 작품은 금련산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순이의 「창가의 휴식」은 햇빛이 내리비치는 창가에 두 개의 화분이 싱그러운 초록 잎을 드러내고, 얇게 비치는 푸른 청색의 커튼이 인상적인 일상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김동순의 「홍학」은 잔잔한 수면 위를 걷고 있는 홍학의 무리를 핑크빛 화면으로, 이색적으로 전달하고, 권지현의 「풀의 이야기」는 담벼락 아래 들꽃들이 잔잔하게 피어있는 서정

적인 장면으로 일상에서 작고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임종옥의 「휴식」은 물기를 가득 머금은 인물의 묘사로 세월의 흔적을 투명하게 만들고, 정용근의 「생의 단면」에서는 깊고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의 내밀한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3월 26일 금련산갤러리에서는 원로 작가 조규철(고문)과 양홍근 작가의 인물화 시연이 펼쳐진다. 이순이 회장은 “그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수채화분과전에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따스한 햇살로 싱그러운 3월의 어느 날, 전시장에 들러 수채화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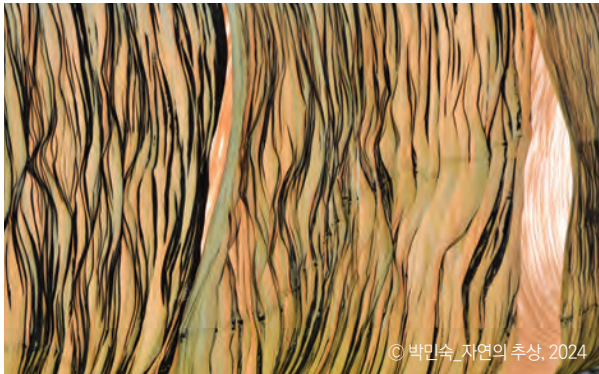
문의_010-5528-3736 / 편집실

2025
사진나무숲
기획전

도시
미니
멀

2025. 3. 13. ~ 23.
스페이스포포

지역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사진나무숲]의 2025년 기획전 '도시미니멀'이 스페이스 포포에서 개최된다. 지금까지 기록과 재현을 중심으로 주변의 도시 이미지를 작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은 낯선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목표 아래 2년 동안 준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 박민숙_자연의 추상, 2024



© 이광필_빛..평면, 2024

‘도시미니멀’은 미니멀리즘이라는 사조를 바탕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 본질적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개념적 태도로 접근해 촬영한 기획 전시이다. 1960년대 초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사물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예술가의 감정과 사상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감상자의 감정이입도 차단했다. 그럼으로써 재료 자체의 성질을 전면에 드러내 질제의 미학을 극대화한 사조이다. 복잡한 치장과 불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본질적인 것만을 드러낸 질서 있는 형상들은 우리에게 편안한 감정을 전달한다.

전시는 단순히 형태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 ‘시공간의 지각’, ‘특정 장소의 중요성’, ‘관계성’ 등을 중심으로 본질에 다가선 작품들로 구성했다.

박민숙은 우리의 일상에서 다가온 자연과 도시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표현한 추상작품을 선보인다. 「자연의 추상」의 화면 전면에 깔린 일렁이는 물결의 흐름이 동양적이면서 감각적으로 다가온다. 손동환의 「밤의 도시」는 작가만의 감각과 빛을 보는 방법이 독창적이다. 푸른 빛으로 뒤덮인 거대한 건축과 어두운 밤하늘 위에 비친 초승달이 대비를 이루며 기묘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윤민정은 일상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빛과 어우러진 정동적 사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창문에 가려진 블라인드 사이로 비친 빛이 화면을 매우



© 윤민정_VIEW, 2024

질서정연하게 분할해 빛으로 이뤄낸 색면의 구성이 인상적이다. 이광필의 작품은 도시구조가 보여주는 기하학적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장성희는 빛과 사물의 만남을 관조적으로 표현했다. 정조훈은 비율과 균형, 원근감에 대한 방법론으로 도시를 바라본다. 추점자는 오래되고 사라져가는 정물을 통해 미묘한 감정과 평면을 드러낸다.

“완벽함이란, 더 보탬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무한한 정보와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 ‘도시미니멀’은 우리에게 ‘도시 보는 법’을 새롭게 제시한다.

문의_010-5528-3736 / 편집실



202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 3. 25. ~ 26. 화 오후 7시 30분 / 수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문화회관에서 2025년을 맞아 기획한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이하 세를산)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과 부지휘자 백승현이 참여해 깊이 있는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품격 있는 연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세클산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리즈 공연으로 기획됐다. 첫 번째는 지난 1월에 '헝가리'를 주제로 피아니스트 박진우가 음악 여행의 감동을 선사했으며, 3월은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의 연주가 돋보이는 두 번째 시리즈 '아메리카'이다.

아메리카 음악은 초기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전해졌으며, 당시 많은 작곡가는 유럽의 양식을 고수하며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20세기 초 들어서면서부터 재즈와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의 래그타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스콧 조플린과 20세기 미국의 중요한 현대음악 작곡가인 코플랜드의 곡으로 아메리카 음악을 살펴본다. 영화 <스팅>의 주제가 「The Entertainer」와 전설적인 클라리네티스트 베니 굿맨이 초연한 아론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 발레를 위한 실내악 편성으로 작곡됐으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되어 더욱 유명해진 코플랜드의 「애플래치아의 봄」Appalachian Spring Suite」 모음곡을 들려준다.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에 선발되어 클라리넷 종신 수석 주자로 활동했으며, 스위스의 빈터투어 무직콜레기움 오케스트라와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을 역임, 드뷔시 국제 콩쿠르 특별상 수상 등 유럽과 미국을 누비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협연해 기대가 모아진다.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은 여름의 계절, 7월에 세 번째 시리즈 '북유럽'을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협연하고, 8월에는 네 번째 '프랑스'로 떠나 색소폰리스트 브랜든 최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10월에는 마지막 시리즈로 하프 연주가 황세희가 참여해 '영국'을 선보인다.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부산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 하루의 해가 저무는 퇴근길, 세클산의 연주로 즐거움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

문의_051)607-6000 / 편집실

백 승 현 (지휘 및 해설)

·2023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 지휘자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
오케스트라 지휘, 합창 지휘 석사
·2021년 7회 예르스트 폰 슈트 상을 공동수상
·2019 안데어오더음악축제,
지엘로나구라 필하모니 협연



조 인 혁 (클라리네티스트)

·드뷔시 국제 콩쿠르 특별상 수상
·앙리 토마시 국제 목관 오중주 콩쿠르 1위
·칼 닐센 국제콩쿠르 입상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종신수석 역임
·반도렌 & 부페 크람폰 전속 아티스트
·한양대학교 부교수





LOVE & PIECE 부산시립미술관 × 도모현 전시 전경



OUR OBJECT-가구전_이상향 해변



OUR OBJECT-가구전 새로운 우주



PIECE PIXELS - 사진전

LOVE & PIECE: 부산시립미술관 × 도모현 전시

2024. 12. 13. ~ 2025. 3. 30 도모현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서진석)과 도모현 협력 프로그램 'LOVE&PIECE'전이 도모현 소소품 라운지 1층에서 3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공간에 자유롭게 펼쳐진 작품들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도모현이 가진 공간의 편안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OUR OBJECT-가구전은 아워레이보^{our labour}가 선사한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우주」, 「이상향 해변」, 「구불구불한 길」, 「오래된 책방」, 「이상한 식물원」 등 콜라주 하듯이 겹쳐놓은 공간이 독특한 세계로 다가온다. 눈부신 조

명에 둘러싸인 흔들의자 문체어^{Moon Chair}에 앉아 CRT 모니터에서 반복되는 영상을 감상하며 여행을 떠나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PIECE PIXELS-사진전은 조각난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는 장이다.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담아 그들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낸다. 조각난 픽셀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다층적인 서사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_051)888-8706 / 편집실

우암 오재수선생 백수연白壽宴

2025. 2. 21. 오후 12시 해암뷔페

오직 동양화의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는 부산의 원로 작가 우암(又庵) 오재수 선생의 아흔아홉 해를 기념해 지난 2월 21일 연산로터리 해암뷔페에서 백수연을 거행했다.

오재수는 1927년 대구시 군위 출신으로, 스승을 찾아 전국을 다니며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여러 스승 아래서 배움의 길을 스스로 찾고 터득해 나간 작가이다. 부산에 정착한 이후 1962년부터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한국화 부문 등에 입선해 전업 작가로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해오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그는 단순히 대상이나 풍경의 사실성만을 쫓지 않고 정신성을 드러내는 표상으로써 글과 그림을 대하며 전통 서화(書畵)를 고집해 왔다. 사군자 이외에도 기암괴석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계곡과 끝없이 펼쳐진 산세 등의 전통 관념의 산수를 표현하며, 청사포, 자갈치와 같은 현실의 풍경에 이상향을 담아 동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완성했다.

오랜 세월 부산 예술계에 몸을 담아 헌신하고 후학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며 큰 귀감이 되어 온 오재수 선생의 백수연에는 그의 따뜻한 인품을 기억하는 부산 예총 오수연(회장), 부산미술협회 최장락(이사장), 박무숙(부이사장)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감사패 증정과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 편집실

1 오재수_국화 2 백수연행사



1



2

마냥 웃을 수는 없는 블랙코미디 **웃음을 잃지 마세요**

2025. 3. 7. ~ 8.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웃음을 잃지 마세요〉는 2021년 2월, 〈두 개의 허〉라는 작품명으로 '공연예술창작 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되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처음 선보였다. 2023년 국립정동극장의 '창작ing'사업에 선정되어 〈웃음을 잃지 마세요〉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재창작되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되어 공연되었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사업에 채택되어 공연된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는 언뜻 상냥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취소 선이 그어진 글자들을 빼고 읽으면 ‘웃지 마세요’라는 다소 싸늘한 문장이 된다. 인간의 양면성을 더욱 진하게 드러내는 바뀐 제목만큼이나 한층 깊어지고 발전된 작품으로 재창작되었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한 광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우스꽝스러운 자기 모습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페르소나를 만들어 내며 자아를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타인의 만족을 위해 분장을 덧칠할수록, 광대의 본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광대는 자신이 만들어 낸 여러 페르소나에 잠식당해 간다. 이런 광대의 모습은 가면을 덧쓰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공연은 클래식 발레 베이스의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안무와 미니멀한 무대가 절묘한 조합을 이루어 작품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균형이 바로잡힌 ‘카운터발란스’에서 흐트러진 모습의 ‘오프발란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 여러 무용수의 신체가 겹치는 모습 등을 통해 익살스러움과 기괴함을 동시에 전달한다. 인간 내면의 여러 모습과 그 가

운데서 느끼는 혼란을 움직임의 이미지로 구현한다. 흑과 백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무대는 작품의 흐름에 따라 분장실, 커다란 분장대, 벽, 감옥 등의 공간으로 변모해 광대의 서사를 구체화한다. 강렬한 색상의 조명은 퍼포먼스가 선사하는 에너지를 배가시키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실루엣으로 인간 내면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대중과의 거리감과 장벽을 없애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안무가’라는 평을 받는 조현상 예술감독은 연극성 짙은 무용극 〈웃음을 잃지 마세요〉를 통해 관객에게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이 현시대에 던진 메시지는 ‘내가 가진 진짜 나의 모습에 접근하는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공감과 소통을 끌어내고자 한다. 조현상을 필두로 김진엽, 민경림, 박재혁, 안송은, 이효선, 정민 등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의 단원들이 무대에 오르며, 드라마티크 구시연, 무대디자이너 조일경, 조명디자이너 류백희, 음악감독 김형민, 비주얼디렉터 신미정 등이 참여해 무대를 한층 더 강렬하게 꾸민다.

문의_070-4252-3883/ 편집실



융프라우 산악열차

융프라우에는 수십 개의 하이킹코스가 있는데
아이저글레처에서 클라이네 샤이덱까지
37번 코스로 아이저 워크 하이킹을 한다.
발 아래 지천으로 깔린 꽃들과 산들바람을 맞으며 걷는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 삼아 운행하는
빨간 산악기차가 더없이 예쁘다.

글 사진_성현미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간사)







스위스 루체른 카펠교

1333년에 지어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로
중세의 분위기를 느끼며 걸을 수 있다.
지붕을 받치는 대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적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가
그려진 패널화가 있다.
잔잔한 로이스강의 물결과 색이 평화롭다.



마테호른

마테호른 어귀의 로텐보덴에서 리펠베르그까지 걷는 길,
하늘이 맑게 개면서 마테호른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한 치 암도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에 빠져
마테호른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행은 행운이다.

‘허퍼’

<오징어게임2>가 개봉되었다고 한다. 에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의 여러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되었던 시즌1의 흥행 가도를 기억하기에 기대가 컸다. 아니나 다를까. 정식으로 개봉되기도 전에 골든 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더니 얼마 전 기사가 났다. 아쉽게도 불발되었다고.

간만에 넷플릭스Netflix를 로그인한다. 내재된 인간의 본성을 까발리기 위해 상 상 그 이상의 폭력과 공포가 유발되고, 더불어 점점 치열하고 험악해지던 장면이 시즌1이었음을 떠올리며 잠시 심호흡부터 하게 된다. 와중에 내가 모르던, 또는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가 문득문득 제시되던 작품의 묘미를 다시 기대하며 재생 버튼을 누른다.



어둑하게 시작된 화면에서 알 수 없는 긴박감이 전해진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게임이 펼쳐질 테지만, 내 눈에는 땅바닥을 도화지 삼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의 익숙한 조합이 먼저 도드라진다. 유년의 어느 한 시절, 동네 고살이나 학교 운동장, 하다못해 연습장 귀퉁이에도 심심찮게 그려대던 그림이다. 그 아련하고 가슴 따듯한 추억의 유희 속에 살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냉엄한 논리가 구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철렁해지지만.

초등학교 시절 내 별명은 ‘허퍼’였다. 얼핏 자유분방한 히피hippie를 연상시키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코흘리개 조무래기들이 입으로 주무르기에는 너무 난해한 단어였다. 그 또래는 대개 경음이나 격음을 동원하는 정도의 극히 단순유치한 방식으로 그들만의 조어를 생성하고 길꺾거리기 마련이 아닌가. 내 별명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내겐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허퍼’의 진원지가 오징어게임이었다. 당시에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고무줄놀이만큼이나 인기 있던 놀이였다. 우리는 이기거나 지거나, 선택되어지는 선택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사력을 다한 일단의 몸싸움으로 손톱자국이 생기거나 술기가 터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름 꽤나 살벌한 구도였던 셈이다.

힘도, 요령도 승리의 관건이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 중 어느 하나에도 능하지 못했다. 김불처럼 얹혀 때로는 승자의 편에서 환호하고 때로는 패자의 편에서 절치부심을 외쳤다.

작은 체구에 창백한 낮빛이었던 나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졌다. 죽어라 도망 다니느라 넘어지고, 더러는 제풀에 철퍼덕 자빠져 버리곤 했다. 행여 소맷자락이라도 붙잡힐 때면 패대기쳐질 각오까지 해야 했다. 생채기가 끓일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왠지 그들만의 문화에서 배제되기는 싫었던 모양이다. 눈물 콧물 뿌려가며 엄살을 피운 기억이 없는 걸 보면.

당연하겠지만, 기를 쓰고 영입하기를 원하는 알짜배기 선수의 명단에 한 번도 끼지 못했다. 게임이 시작되면 ‘아웃’되기 바빴거나, 등만 보이며 가늘고 길게 명을 부지하던 몇몇 중에 끼어 있었으니, 그저 머릿수를 채우는 역할이었다 할까. 승리를 이끌기는커녕 상대의 노림수이자 구멍에 불과했다면 지나친 자기 비하일까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비리비리, 여차하면 엎어지는 내게 친구들이 붙여놓은 별명이 ‘허퍼’였고, 싱겁게도 그 기원은 ‘엎어’였다.

여태 ‘허퍼’를 기억하는 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사소한 추억의 꼬투리조차 확대경을 들이대며 떠들썩하게 되새김질하는 동창 모임에서도 거론된 적이 없었으니 세월 속으로 지워져 버렸는가 싶기는 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종종 남모르는 자괴감을 더듬었던 내게는 아직도 생생한 또 하나의 페르소나다.

세상이 해병부대도 아니건만, 한 번 ‘허퍼’는 영원한 ‘허퍼’의 유전자를 잠재하게 되는가 보다. 사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졌다.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졌다. 기가 막히는 노릇은, 입도 귀도 닫은 채 없는 듯이 있어도, 직립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을 쳐도 넘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그 여파로 오래 널브러져 있지 않았던 걸 보면 나는 애초부터 ‘허퍼’의 기질을 타고났는가 싶기도 하다.

몇 해 전 그날, 그도 넘어져 바닥의 시간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함께 넘어져 줄 누군가가 필요했는지, 누군가를 발판 삼는 것이 일어서는 방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분히 충동적이었던, 계획적이었던, 그 누구를 나로 삼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넘어짐에 익숙했던 나는 일어나는 일에도 이력이 붙어 있었으므로.

그날 나는 원 없이 주특기를 발휘해야만 했다. 그가 작심한 듯 몰아붙이는 말의 너털경 속으로 등 떠밀리는 순간, 무사할 방도는 없었다. 나는 결단코 그에 대해 호의만 있어 왔고, 그 또한 그럴 것이라 믿었기에 그의 날 선 언사들이 당황스러웠다. 그의 언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핏물이 어렸다. 차라리 누군가 휘슬을 불어 나를 패자로 선언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런 호의를 베푸는 이마져 없었다. 결국 한 시간여, 나는 육신보다 정신으로 ‘허퍼’를 증명하고자 그를 벗어났다.

그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곧추설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날 내 안의 요지에서 한 사람이 뿔뿔히 나갔던 건 분명하다. 품 넓은 척 미소를 띠며 그 치욕의 시간을 복습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부재가 체기처럼 느껴졌어도, 삶이란 영화나 드라마처럼 해피엔딩만 되는 것은 아니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먼 길 에돌아 그가 다시 내게 오든, 영영 멀어져 버리든 시간의 뒤편이라며 그 불유쾌한 감정의 파편들을 툭툭 털어내는 것이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글썽하다. 진정한 패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확신마저 견고했던 건 아니라서.

삶이란 여전히 진행 중인 오징어게임 같다. 혼신을 다해 치고받고,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총총 퇴장하는 것이 규칙일 게다. 나 역시 어느 날 불현듯 끝을 맞을지, 유년의 그때처럼 이리저리 꿈무늬를 빼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르죽으며 결말을 맞닥트리게 될지 알 수 없다. ‘아웃’으로 게임에서 배제당하던 이들의 험악한 말로가 섬뜩하기는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아웃’되고 난 후에도 게임은 계속될 것이므로.

예상이 예상을 뒤엎고, 반전이 반전에 무너지는 요지경 속. 그 속에서 의연할 수만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러던 어느 시인처럼,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 마



냥 호기롭기는 쉽지 않다. 하여, 씹다 붙여 놓은 껌처럼 그 씹쓰레한 시간을 이따
금은 반추하게 되는가 보다.

모니터 속에서는 남자 둘이 죽기 살기로 맞붙고 있다. 그들은 게임에 충실한 것
일까, 게임이라는 울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잔인한 규칙이 서늘하게 등줄기를 짚어 내린다. 베테랑 ‘허퍼’라는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이겨도 통쾌하지 않으며 진다한들 욕되지 않는 요상한 게
임 앞에서 나는 자꾸만 주춤거리게 된다.

글 문경희 수필가

부산문인협회 신임 회장 박혜숙

- 『서울문학』 시등단(2003), 『신문예』 수필등단(2004)
-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이사장, 한국문협 한국사편찬위원, 새부산시인협회 자문위원.
- (사)부산불교문인협회 부회장, 한국문학신문 선임기자
- 대통령표창장, 부산문학상, 부산시인상, 부산예총문화공로상 외 다수
- 시집 『나를 검색한다』 등 4권



부산광역시문인협회는 지난 1월 17일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혜숙 후보(단독출마)를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회장은 제19대 회장단에서부터 사무처장으로서 꾸준히 지역 문학계를 위해 활동을 해왔으며, 2024년 예술문화공로상을 수상했다.

부산 최대 문학인 단체인 부산문인협회의 수장으로서 창립 65주년을 기념하는 『부산문학사 II』발간과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회장으로부터 부산 문학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직전 사무처장을 맡으셨을 때와는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다.

작년까지 제19대 사무처장으로 부산문협의 실무를 맡아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지역 문학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부산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회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무엇보다 창작의 기회와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메세나 사업과 기관의 협조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문협회가 화합과 소통으로 부산문학관 건립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협회를 이끌게 되어 영광인 동시에 사명감을 느낀다. 부산 문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3년 『서울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2004년 『신문예』서 수필가로 등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문인협회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인가.

원로님 한 분께서 부산의 시인은 부산시인협회와 부산문인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해야 문인이자 시인으로서 교류를 통해 문학적 대화를 나누고 작품 발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학 행사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창작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니 꼭 가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3년 말, 부산문인협회에 가입하여 크고 작은 행사에 봉사도 하고 홍보부장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신문과

매스컴, 웹 등에 부산문협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분과위원장(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화전을 기획해 다대포해변공원과 초읍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전시했다. 『무크지』(3호까지 발행)를 만들어 회원들과 부산시 각 기관과 부산 시내 도서관,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한 바 있다.

부산문학계의 현실과 앞으로 주목할 담론들은 무엇인가.

부산문학계는 현재 오랜 숙원 사업인 부산문학관 건립이 부지 선정과 예산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열악한 문학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문학적 변화, 문학과 미디어의 결합, 그리고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문학적 담론을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양 허브 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해양문학 발전에도 부산문협과 부산문인이 더욱 관심을 두고 임해야 한다.

『부산문학사 II』 발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듣고 싶다.

『부산문학사 II』 발간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 부산문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후대에 전승할 중요한 문학 자료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2009년, 부산 메세나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문협 50주년 기념 『부산문학사』가 발간된 바 있으나, 다른 지역의 문학사 자료집과 비교했을 때 지면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또한, 2009년 이후의 문학 활동과 변화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부산문학사 II』 발간은 협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동안 축적된 부산문학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부산문학관이 건립되면 이 자료가 후대 문인들에게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자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학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산문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부산문인협회의 올해 계획이 궁금하다.

가장 큰 행사로 ‘부산국제문학제’가 올해로 14회째인데 부산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추진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국제문학제를 추진하는 유일한 지역협회로서 명맥을 놓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그 역사를 이어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양문학 행사인 ‘제29회 한국해양문학제’가 한국해양문학 발전에 관한 특강과 심포지엄 그리고 한국해양문학상 시상 등으로 부산시 지원금 4,600만 원을 받아 8월 8일에 열린다. ‘제4회 부산문인의 날’ 행사, ‘부산 시민문에 강좌’가 연 4회로 진행되며 백일장 2번, ‘청소년시 낭송대회’, ‘다문화시낭송대회’가 있다. ‘전국지역문학교류전’ 연 1회, 해외 문학기행 1번, 국내 문학기행은 봄과 가을 2번, 문학 강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문학사 II』 발간을 올해부터 시작하여 임기 3년 동안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지역 문인들과 부산문인협회 회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전국 지역교류전을 지속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문인과의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이뤄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 문인들의 연대에도 주안점을 두어 부산문인협회 회원 모두가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라는 자긍심과 주인의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협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선배 문인들이 이룩한 위대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재정립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많은 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부산문학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인터뷰_정리_정혜주

부산무용협회 신임 회장 남선주

- 제20대 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지회장
- 제18, 19대 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지회장 역임
-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역임
-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운영자문위원 역임
- 부산광역시시립무용단 운영위원회 위원 역임



부산무용협회의 제20대 회장에 남선주 무용가가 선출됐다. 남회장은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후 남선주무용단 대표로서 영남에서 우리 춤의 방향을 모색해 왔다. 2011년에는 부산 예술총연합회 젊은예술가상, 2015 박록주국악대전 일반부 우수상, 2015 부산무용협회 올해의 무용인상, 2017년 부산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1963년에 결성되어 60년 넘게 지속된 부산무용협회의 회장에 대한 각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다.

이 자리는 선배들이 쌓아온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 동시에 현대와 맞춰 취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신진 무용인 양성, 지원, 공연 기획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산은 예술과 문화가 활발한 도시이고, '영남의 춤'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부산 예술계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 중심에서 개개인의 능력이 돋보이고 협업과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연대의 움직임이 중요해 졌다. 부산무용협회 회장으로서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다.

무용가 개개인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무용수와 안무가의 개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마스터클래스, 멘토링시스템, 국내외 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기획, 연출, 브랜딩,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지역 지원사업을 연계해 청년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현대예술 트렌드(기술, 음악, 영상, 연극, 패션 등)와 협업하고, 다른 지역 축제와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공연 형식과 무용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무용의 대중 친화적인 부분(부산시민대동춤)을 교육이나 지역 축제 등에서 선보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화에 힘쓸 것이다. 플래시몹, 거리공연, 댄스워크숍 등을 확대해 부산에 춤바람을 일으키

고 싶다. 변화하는 시대에 '무용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무용가로서의 인생은 어땠나.

어릴 때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무용학원을 5살 때 처음 갔다. 3개월 동안은 의자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그 후 눈으로 다 외우고 있던 순서를 일어나 따라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부산무용협회는 2008년에 가입하고, 2015~16년 감사로 일하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았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제18, 19대 부지회장직을 맡으며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과 함께 협회의 역사와 위기 속에서 함께 했다.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4년간 무용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생활고로 인해 무용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협회가 앞장서서 돕겠다.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면 후배들에게 좀 더 든든한 부산무용협회를 물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통춤의 매력은 무엇인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가 궁금하다.

전통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와 정서, 그리고 철학이 담긴 종합예술이다. 자연스러운 흐름과 즉흥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며, 춤을 추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반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늘 수행하는 자세로 임한다. 결국 춤을 출 때 보여지는 것은 호흡이다. 마음의 눈으로 호흡을 바라보며 춤을 춘다. 이것은 불교의 대표적 사상인 공(空)과 연기(緣起) 사상이며,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과 연결된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춤을 추고, 삶을 통찰하며 나아가고 있다.

청년 예술가 유입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부산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공간을 확보해 청년들이 창작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 건물들을 스튜디오나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전국무용제를 부산에서 유치하고, 원로와 신진무용가들을 매칭해 협업 공연으로 다양한 관객층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기획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고 창작지원금을 마련하겠다. 시민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이런 정책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화를 이룬다면 청년예술가들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무용협회 회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회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회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줬으면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무용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부산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저의 미흡한 힘을 보태어 살기 좋은 예술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인터뷰_정리_정혜주



제19회 부산연극상 '젊은 연극인상' 수상

아이컨택 대표 양승민

- 2024년 부산연극협회 이사
- 2024년 부산연극인상 젊은 연극인상
-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 선정
- 현) 부산연극협회 국제교류 예술감독
부산국제연극제 해외초청공연 매니저
극단 아이컨택 대표
웅북함 퍼포먼스팀 틀에디션 대표
수영구청 광대연극제 조직위원회 위원



[아이컨택]의 대표이자 연극배우인 양승민은 2025년 1월 2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19회 부산연극상 시상식에서 '젊은 연극인상'을 수상했다. 젊은 연극인상은 작년 한 해를 빛낸 젊은 연극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양승민은 수상 소감으로 함께 공연을 빛낸 단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했다. 그는 수상의 영광을 단원들 모두와 나눴다.

양승민은 동서대학교 연기과를 졸업한 후 영화 업계에서 5년간 일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연극으로 돌아왔다. 단순히 벌기 위한 삶보다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택했다. 그에게 연극은 영화와는 사뭇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직접 관객과 마주한 상태로, 숨지 않고 연기를 해나가는 것, 실력이 없으면 그대로 탄로 나는 것 등에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연극 연기는 열심히 한 만큼 그대로 티가 나

기에, 무대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양승민은 배우로서 연기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2022년부터 극단 아이컨택을 이끌고 있다. 단순히 극단 소속의 배우로서 연기하는 것과 대표로의 역할은 꽤 차이가 있었다. 배우만 했을 때는 오롯이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대표는 작품을 홍보하고 프로듀서로서 제작도 맡아야 했다. 그는 이런 경험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다재다능한 그는 부산 인디 게임 행사인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성우와 야외가 주 무대인 <틀에디션Tr-edition>의 제작과 연출도 맡는 등 콘텐츠의 가짓수를 늘리고 있다. 양승민은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은 '콘텐츠'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콘텐츠 스펙트럼을 점차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갖가지 작품을 많이 다뤄본 양승민이지만 가장 애정하

는 작품은 단연 <룸메이트>다. 이 작품은 남자, 여자, 남녀 버전 총 3가지 시리즈로 나뉘는 코믹 장르의 연극이다. <룸메이트>가 아이컨택의 대표작인 만큼, 후자는 극단 아이컨택을 ‘극단 룸메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년 빠짐없이 공연되는 만큼 좋아해 주는 관객도 많다. 그가 <룸메이트>를 애정하는 이유에는 인기 말고도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 잔잔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연극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즐거움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살지만 그 해답을 쉽게 내놓지는 못한다. 양승민은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연극으로 웃음을 선사하고 싶다고 했다.

양승민에게도 연극 생활 중 즐거운 시절만 있지는 않았다. 2021년도 한창 코로나19가 성행했던 시기의 경제는 침체기였으며 공연예술계는 가히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다. <앨리슨의 집>을 마지막으로 극단이 문을 닫기로 정했던 적도 있었다. 아이컨택 소속 단원들은 마지막 공연으로 생각한 <앨리슨의 집>을 준비할 때도 대충이란 없었다. 12월의 강추위 속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12명의 배우가 19세기 고전 의상을 입고서 공연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다. 양승민은 그때의 기억 덕분에 힘들어도 연극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에 뿌리를 둔 양승민과 아이컨택은 국내에서만 활동하고 접을 생각이 없다. 이미 해외 공연을 하며 글로벌 극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월드투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처럼 아이컨택의 연극을 브랜딩하고자 한다. 양승민은 부산의 연극이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의 증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컨택 주관하에 개최됐던 ‘제1회 디셈버 뮤지컬 페스티벌’은 많은 청년들의 반응을 끌어 냈다. 신흥 연극인들의 유입을 늘릴 플랫폼의 신호탄 역할을 한 셈이다. 그는 개인의 힘으로는 이런 플랫폼 증설의 어려움을 몸소 느꼈다고 전했다. 그와 동시에, 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상생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좋은 이야기에 끌린다.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때론 거짓말을 만들고 때로는 역사를 쌓는다. 이야기는 인간사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좋은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 이야기를 풀 수 있는 플랫폼들이 활발히 운영된다면 자연스레 플레이어(배우)와 관객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승민은 부산 연극계뿐만 아니라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연극의 글로벌화를 위해 족적을 남기고 있는 양승민의 길을 따르는 젊은 연극인들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의 즐거움이 확산되어 세계적인 K-연극의 리더로 앞장서는 그날까지 그를 응원해 본다.

글 인물사진_박준영



<틀에다선 Tr-edition>

그림 가르치는, 작가 **최추자**



자연 '25_4

공공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졸 소리를 낼 무렵,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그림 방을 열어 지금도 열심히 제자를 양성하고 계시는 최추자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최추자 선생님은 학과장으로 계셨기에 나에게 '최추자 학과장님'이라 칭하기가 더욱 익숙한 분이기도 하다.

- 196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 부산미술협회 부이사장 및 한국화 분과위원장
- 부산 신라대학교 미술과 교수 역임
- 2014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장
- 2014 부산비엔날레 이사 및 운영위원장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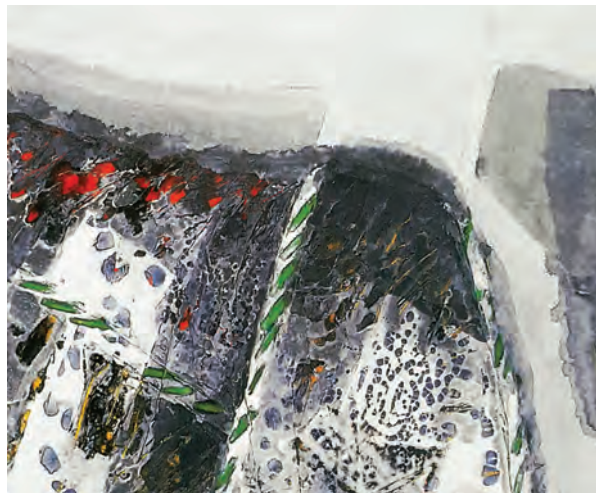
미술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연 '25_1

어릴 때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광복동에 살았습니다. 1가 43번지가 제가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대청동 고개로 이사를 가면서 집 근처에 있는 남성여자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은 '故 이석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이 마치면 이북에서 내려온 학생들은 국제시장으로 장사하러 내려갔고, 저는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많이 반대하였지만 둘째언니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재료를 사주었습니다. 친구 따라 유화물감을 사용해 보았는데 비싸기도 했지만 빨리 없어지는 바람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먹과 벼루를 언니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입니다.

남성여고 입구에는 '보리수'라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전국의 미술작가가 부산에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바로 그 보리수다방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석우 선생님과 함께 미술작가를 많이 만나며 예술가의 작품세계를 엿듣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출품을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징검다리」라는 작품을 출품하였는데 그 작품이 입상했고, 이후로도 국전에 입상하였습니다.¹⁾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다섯 자매 중 넷째입니다. 60년대 여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 간호대학을 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모두 공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 이후 모두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돈벌이가 중요시되는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언니가 의과대학을 다니는 의사이기도 했고, 간호대학을 가야 돈을 벌 수 있었기에 간호대학에 진학하기를 언니가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 공부 및 주사 놓는 방법을 언니가 많이 가르쳐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처음 생긴 마포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바로 옆에 홍익대학교



작업실에서 최추자 작가

가 있었기에 그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고 말하며 간호대학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파리에 있는 둘째언니가 저를 응원해 주며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언니는 평생 갇아도 다 못 갇을 저의 은인입니다.

평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발자취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이선자 선생님’(생물 과목)께서는 임신하셔서 배가 살짝 나와 계셨는데 칠판에 판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서 ‘나도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라고 꿈꾸어 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발단되었는지 이후 홍대를 다니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다른 이들처럼 학교 선생님이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평택중학교로 발령이 났지만, 고향인 부산에 내려오기를 희망하였기에 부산영남제일중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미술 선생님이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을 시작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 간호사와 함께 독일에 다녀오면서 구라파(歐羅巴²⁾)를 경험하고는 “문화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며 각 학교로 미술 선생님을 2명씩 배치했습니다. 그 바람에 중학교 교사직은 다른 후배에게 넘겨주고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故 오재봉 선생님’(사예)과 제가 부산영남상업고등학교(현 부산정보산업고등학교)로 부임했고 저는 거기서 12년 동안 미술 선생님이로 재직했습니다.

40대에는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대학교 시간강사(외래교수)를 했습니다. 부산대, 경성대, 동아대, 부산여대, 동국대 등 강의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48세(1993년)가 되던 해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65세(2011년) 정년 퇴임까지 20여 년 동안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평



생을 미술 교사로서 부산 미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늘로 퇴직한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초기 작품과 지금의 작품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경성대학교에서 사실화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화를 가장 기초로 해야만 현대적인 그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양우 선생이 나에게 “왜 시대에 뒤떨어진 그림을 그려? 현대적인 그림은 안 그리고 왜 옛날 그림만 그리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말에 화가 나서 그길로 곧바로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파리, 미국 등 많은 미술관을 여행하며 수많은 예술 작품을 접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그림과 수많은 책자를 통해 그림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추영근 선생님’의 작품으로 추상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는 사실화와 추상화를 함께 그리며 구상(사실화)에서 추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였더니 주변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원회]에서 故 안상철 선생님과 함께 입체그림전에 참여할 때는 「自然 Nature-90」라는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작품을 하는 내내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후로 파리에 초대받아 초대전을 열기도 하고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 전시를 많이 하였습니다.



40대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닥다리에 나타나신 하나님」, 「홍수와 하나님의 진노」, 「영적 전투」, 「택한자의 부활」 등의 작품처럼 성경 내용을 추상화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화는 종이에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삭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종이는 보관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개인전(회고전)을 할 때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제자를 양성하고 계시는데 ‘솔그림방’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솔그림방의 ‘솔’은 Soul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도레 미파솔할 때의 솔입니다.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 할 때 많이 나오는 음이 바로 솔입니다. 이름은 그림방에 모이는 학생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솔그림방은 5년째 운영 중인데, 처음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2년 동안 무료로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가장 신문 기자가 취재를 나오면서 가장 지역신문에 저희 소식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그림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연령층

의 20여 명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료 없이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은 미술대학 4년제 교육커리큘럼으로 그림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은 3학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졸업 전시를 위해, 내년 12월 10일에 경찰청에서 그림을 전시하기로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졸업시킬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스스로 그림을 연구하고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그림방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작가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개인 미술관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품을 비롯해 역사적인 수집품이 창고에 한 가득 있습니다. 체코를 여행할 때는 미래에 만들어질 아트숍을 상상하며 예쁜 커피잔 받침대를 사오기도 하며 아트숍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동네마다 미술관이 다 있습니다. 그 미술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며 카페, 아트숍 등 지역문화의 기초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지낼 때, 이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돌아가면 고향에서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림과 수집품은 모두 창고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슴에 품고 있던 그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예술가로서의 이 소망을 품고 있기에 지금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_권오혁 아티멘션 대표

1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제13회, 15회, 16회)

2 유럽을 음역해서 만든 한자어

No. 38

세종대왕의 나들이

구 목순

은행에서

방금 나온 만원짜리 지폐

세뱃돈으로 철이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오락한다고 문구점 주인 금고에 잠시 누웠다가

배고픈 할배 돼지국밥집으로 변했다가

거리공연 하는 가수 바구니에 들어가 흥얼거리다가

드디어 지하철 앞 노숙자 소쿠리에 누웠다가

곳곳을 누비며

서민들 살림살이 살펴러 나온

압행 어사야!

작가노트 |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하게 된다.

글_구옥순 아동문학가, (사)부산문인협회 부회장

RE: VIEW

문학

『문학도시』 2024 작품상 수상작 읽기
탁영완 시 「따로 늙는 노래」_조현숙

영화

〈벌집의 정령〉_손승웅

미술

디지털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 *Loop Lab Busan* 과
BMA 비디오 하이라이트_정혜주

『문학도시』 2024 작품상 수상작 읽기

탁영완 시 「따로 늙는 노래」

글_조현숙 시인

“Honey, Don't worry, I'm here, I'm here!”

「따로 늙는 노래」가 가슴에 먹먹하게 들어온 것은.

가파른 계단 중간에서 겁에 질려 멈춰 버린 부인에게 뒤따라 오르던 남편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우리는 앙코르와트의 일몰 명소인 프놈바켕 사원에서 일몰 풍경을 놓칠세라 서둘러 계단을 오르는 중이었다. 아내를 달래던 그 미국인 노부부를 보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다. 자기가 아라서 버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왜소한 체구에 비해 부인의 몸집이 너무 육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울컥 솟았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걱정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여행지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노부부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엄숙해진다.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파도를 넘어왔을까. 때론 함께 탄 배가 난파할 것 같은 위험도 만났으리라. 수많은 풍랑을 통과하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모습엔 삶의 전장에서 승리한 흔적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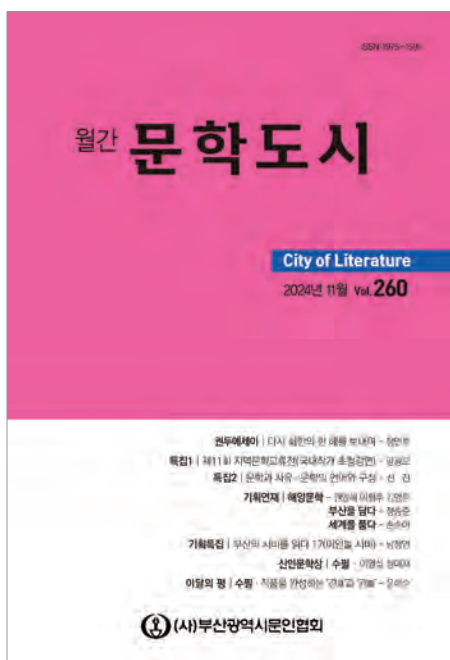
하지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인연이 있을까. 언젠가는 반드시 손을 놓고 각자의 길을 홀로 가야 할 때가 온다는 걸 우린 안다.

그래서일까. 부산문인협회 발간 종합문예지인 월간 『문학도시』에서 2024년도 우수작품상에 선정된 탁영완 시인의

함께는 늙을 수 없네
그대는 늘 푸른 잎 은행나무
그 그늘에서 부르던 노래 흥얼거리지
천화의 금빛 영혼 키만큼 흠모하다 이제사 집착
의 손 놓고
더러 깜박 기억 밖에 노숙할지라도
마음은 황금 곳간 따스하다
다 놓고 놓지 못하고
차가운 머리 하늘에 두고 동안거 드는 지금
무채색 본성 하마 짐작해 보는 세월
존재의 땅을 찾아가는 막바지 여정에도
마음을 여는 초록 감각의 손잡이가 있어
우리, 함께는 늙을 수 없네

- 탁영완 「따로 늙는 노래」

탁영완 시인의 남편은 소문난 애처가이다.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서 그런지 탁 시인에게선 언제나 활짝 핀 모란처럼 곱고 화사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1986년 『시문학』으로 등단하여 중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그녀가 한국문인협회와 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 여러 문인단체 회장 등을 역임하며 13권의 시집 발간, 각종 문학상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의 격려와 사랑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 몇 년 전 병환으로 쓰러졌다. 지금은 링거와 호흡기 등, 의료 기구에 의존해 몸짓으로나마 겨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에 있다고 한다. 그토록 든든하게 잡아주던 남편의 손을 놓칠 뻔했을 때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함께 손잡고 나아가리라 믿었던 그는 지금 병석에 누워 생의 막바지 여정을 홀로 가고 있다. 시인은 그와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추억으로 아픔을 견디며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빛을 갚듯, 뒤늦은 연서를 쓴다. 그녀가 밝힌 시작詩作 노트에서 담담한 표현 뒤에 숨어있는 시인의 애뜻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우리도 나무를 닮아 나무에게서 인생을 본다. / 푸른 은행나무처럼 무성했던

삶, 약속의 기억, / 노란 은행잎 찬란한 시절은 마음 곳곳에 쌓여
늘 함께 머문다. / 비록 아프고 제각기 늙어가는 지금은 차가운
계절, / 더러 캄캄캄캄 잇음이 혈해도 절절히 느꼈던 함께의 한
생이 추억(초록 감각의 손잡이)되어 있다. 계절을 비워도 다는 털어버리
지 못하듯 / 문득 떠오르는 인연 갈피의 풋풋한 노래 흥얼거리
듯 / 홀로 가는 막바지 생, / 뒤늦게 빛을 갚듯 당신께 쓰는 줄줄
이 연서 / 따로 함께... 저문다.

그는 지금 홀로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시인과 그는 나무처럼
무성하고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 했던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어
둠의 저쪽에서 가끔 깜빡이는 기억이라도, 한 생을 함께한 추억이 있기
에 시인은 그것이 서로에게 따스한 위로로 가득 찬 황금 공간이라고 생
각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함께’라는 말은 얼마나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말인가. 함
께하는 이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먼 길도 가까운
듯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누구도 서로의 삶과 죽음을 대
신해 줄 수 없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던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의 황금 공간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
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그 공간에 채울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지 않을까.

함께 또 따로 가야 하는 자연의 이치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
간까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석양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삶의 막바지
길에 들어선 남편 곁에서 줄줄이 연서를 쓰고 있는 탁 시인의 모습처럼.

오래전 앙코르와트에서 나란히 앉아, 장엄하게 지는 해를 바라보던 노
부부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비록 언젠가는 손을 놓을 때가 있겠지만 인생의 석양에서도 외롭지 않
게 서로를 붙들어 주는 말,

“Don’t worry, I’m here!”
그 말의 따뜻함 때문에.

〈벌집의 정령〉

El espíritu de la colmena, 1973

글 손승웅 영화감독

빅토르 에리세 Victor Erice 감독의 〈벌집의 정령〉은 스페인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감독의 장편 데뷔작임에도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조개상을 받은 이 영화는, 40년간 이어진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정권(1936~1975) 속에서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삶을 그려낸다. 프랑코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고, 민족주의와 파시즘 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당시 많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해외로 망명한다. 20세기 최고의 화가라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1881~1983)는 프랑코 정권을 비판하는 세기의 대작 「게르니카」를 그렸고,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1876~1973)는 지휘자로 망명 이후 프랑코 정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연주하지 않았다. 초현실주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의 루이스 부뉴엘(1900~1983) 감독 역시 망명을 택한다. 그러나 이토록 예술가들에게 힘든 시기였음에도 빅토르 에리세 감독은 스페인에 남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가기로 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

아이의 순수한 시선과 상상력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쫓는 이 영화는, 1940년 스페인의 시골 마을 카스티야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어린 소녀 아나(아나 토렌트 분)와 그녀의 가족이 사는 마을에 떠돌이 영화관이 찾아와 제임스 웨일 감독의 공포영화 〈프랑켄슈타인(1931)〉을 상영한다. 영화 속 괴물이 소녀와 함께 노는 장면에 강한 인상을

받은 아나는 언니 이사벨에게 영화 속 괴물에 대해 묻고, 이사벨은 괴물이 현실에도 존재하며 벌집 근처의 황폐한 건물에 산다고 말한다. 순진한 아나는 수시로 그곳을 찾아가 환상 속의 존재와 소통하려 한다. 그러던 중 부상을 당해 숨어있던 공화파 병사를 만나게 되고, 아나는 그가 그토록 찾던 정령이라 믿고 먹을 것과 옷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아나가 가져다준 옷 때문에 병사는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사살되고 뒤늦게 병사의 피를 발견한 아나는 정령이 죽었던 사실을 알고 공포에 휩싸이며 집을 떠난다. 벌집과 같은 텅 빈 세상을 헤매다 슬픈 얼굴을 한 괴물의 환영을 보는 아나. 이후 그녀는 무사히 부모에게 발견되지만, 영화는 그녀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묘한 여운과 함께 남긴다.

성장과 억압

영화 속 마을은 황량하고 침묵이 지배하며,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다.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아버지 페르난도는 벌집을 연구하며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어머니 테레사는 존재가 불확실한 연인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는데 그 모습 역시 무기력하다. 사살당한 병사는 내전에서 패한 공화파를 상징하며, 그를 도왔던 아나는 새로운 세대가 억압받는 현실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프랑켄슈타인〉 영화 속 괴물과 현실의 괴물(병사)을 혼동하며 성장의 고통과 전환점을 맞는 아나. 그녀에



게 세상은 명확히 선악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전혀 녹록지 않다. 고립과 소통의 부재. 끝끝내 영화 속 인물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아나는 괴물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당시 프랑코 독재정권의 억압된 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개인 간 제대로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경이로움과 두려움

영화는 영상을 시적으로 표현한다는 스페인 최고의 감독답게 대사는 최소화되고, 영상미와 분위기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미장센 역시 그 자체로 감동적인데, 루이스 쿠아드라도의 촬영은 황금빛 톤을 강조해 실제 별집 내부 같은 느낌을 주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아나가 경험하는 변화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한다. 영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자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1993)>를 떠올리면 된다. 빈번한 익스트림 롱 샷(Extreme Long Shot)을 통해 캐릭터는 자연 일부로서 존재하고, 노랑과 파랑이라는 보색 대비 외에도 두 개의 장면을 심층적으로 연결하는 디졸브(Dissolve)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미니멀한 음악과 침묵을 활용해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거기에 더한 아나 토렌트의 연기는 영화의 정서를 전달하는 핵심 요소다. 소녀의 순수한 눈빛만으로도 관객은 그녀가 경험하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 주요 메타포인 '별집'은 영화 전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별들은 작은 역할에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들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이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동시에 암시하는 메시지로 작용한다. 이러한 별들의 협력적인 삶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별집의 정령>은 단순한 성장 영화가 아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면서도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별집 속의 작은 별들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영화는 우리 각자의 정령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디지털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 Loop Lab Busan’과 BMA 비디오 하이라이트

글_정혜주 월간 예술부산 기자

부산시립미술관은 4월부터 두 달간 루프 바르셀로나와 문화기획단체 에이플렉션과 협력해 디지털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 Loop Lab Busa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아트가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예술과 기술이 만나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아트 페스티벌이다.

200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비디오아트만을 다루어 온 ‘루프 바르셀로나’는 비디오아트가 미술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특별한 프로그램과 기획력으로 세계적 비디오아트페어로 자리 잡았다.

‘루프 랩 부산’도 루프 바르셀로나처럼 전시·포럼·페어를 합친 형태로 진행된다. 미래미술관 포럼, 예술과 자본 포럼, 디지털·미디어 아트 컬렉션 포럼, 아시아 큐레이터스 포럼 등 4개의 주요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이전의 페어들이 전시나 포럼을 하부구조로 구성한 것과 달리 전시·포럼·페어가 같은 주체성과 무게를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대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그랜드 조선 부산,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박물관, 벡스코, 복합문화공간 도모현 등 부산 20여 개의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루프 랩 부산’의 기획으로 디지털미디어 아트 부산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에 기대가 모인다. 그렇다면 과연 미술의 핵심 장르로 잡아가고 있는 부산의 비디오아트가 추구하는 형식과 의미는 어떤 방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부

산시립미술관·도모현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BMA 비디오 하이라이트’를 들여다보자.

부산 출신인 전준호(1969~)가 비디오아트에서 선보인 작품은 5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연작 중 하나로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동명의 「형제의 상」을 변형시켜 제작한 애니메이션 「하이퍼리얼리즘(형제의 상)」이다. 작품은 왈츠를 추는 군인들이 서로 분리된 채 허공을 감싸안은 모습으로 활기찬 음악을 배경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작품을 통해 분절된 현실과 화해의 갈망을 드러낸다.

미국을 중심으로 ‘light and space movement’ 작가로 활동 중인 제니퍼 스타인캠프(Jennifer Steinkamp, 1958~)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작업하며,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Marie Curie」(2011)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며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마리 퀴리의 딸 이브 퀴리가 쓴 전기에서 언급한 40개 이상의 식물 목록에서 가져왔다. 그는 자연현상을 디지털 렌더링으로 구현하고 건축 공간에 적용해 빛이 공간을 어떻게 창조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덴마크 예술가 예스퍼 유스트(Jesper Just, 1974~)의 「Servitudes-Film」은 8개의 채널로 구성된 작품 중 하나로, 원래는 월체

어 사용자를 위한 임시 구조물과 같은 발판과 영상이 함께 등장하는 일종의 비디오 설치작품이다. 장애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연주하는 쇼팽의 「Opus 17」을 배경으로 보철물을 착용한 여성이 옥수수를 먹고 있는 장면이다. 작품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혹은 욕망의 문제를 제기한다.

김아영(1979-)은 한국 근현대사, 자본주의 사건 등 동시대적인 문제들을 재해석한 작업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체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쉼 3」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직후 건설업체들의 중동진출과 관련해 석유 자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는지, 근로자들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정은영(1974-)의 「정동의 막」은 여성국극의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 여성 배우를 밀착해 추적한 15분 38초의 단채널 비디오 작품이다. 작가는 우연히 여성국극을 접한 것을 계기로 2008년부터 여성국극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영상, 사진, 설치, 공연 등의 작업을 선보인다. 작품은 아카이빙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적 언어로 예리하게 끌어낸다.

서평주(1985-)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검지손가락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구호와 동시에 나치식 경례로 변하는 손 모양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은 우리의 맹목적 행동 뒤에 숨어서 현상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국가적 통제와 억압의 사실을 보여준다. 작가는 모든 형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에 재도달한다.

전소정(1982-)은 사회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다. 「보물섬」은 소리꾼 김윤희가 부르는 제주도 해녀의 노동요 「이어도 사나」로 시작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해녀들의 몸짓을 올림 있게 전한다. 작품

은 타인의 삶을 은유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7명의 작가가 참여해 8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BMA 비디오 하이라이트'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한 영상 작품 중에서 예술적, 미학적 깊이를 지닌 대표작들을 엄선해 상연한 전시이다. 하나의 상으로는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내러티브 한 장면들의 연속으로, 영상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예술의 본질에 다가선다. "대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예술이 쉬워야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오류"라는 전준호의 말을 빌려, 예술은 경계를 지우고 생각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디오 하이라이트의 작품들은 예술로 우리 사회의 진실을 새롭게 마주하게 한다. 특히 제니퍼 스타인캠프가 완성해 낸 현실과 가상 공간이 뒤얹힌 아더랜드(다른 공간 혹은 다른 세계를 뜻한다, MMCA 뉴미디어 소장품전)는 디지털미디어 아트的重要한 지점이다.

디지털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에서 BMA 비디오 하이라이트의 예술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기록하고 있는 사회, 철학, 예술과 기술들은 미디어아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이 디지털미디어 아트의 중심지로 자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주요 작품임이 틀림없다.

BMA 비디오 하이라이트 작품 설명은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소장품을 참조함.



건축과 서예Ⅸ

불전사물과 서예와의 조화 범어사 종루



범어사 종루

불교 의식과 사찰의 종루

사찰에서 종을 걸어두는 건축물은 구조에 따라 종각鐘閣과 종루鍾樓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단층 건물일 경우 종각, 중층 구조일 경우 종루라 부른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와 같은 대형 범종은 중층을 올릴 수 없어 단층에 종을 두고 건물을 지어 종을 매다는 형식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반향 홈, 즉 맥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종소리가 더욱 울려 퍼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에밀레종, 봉덕사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다.

이 종은 그 무게가 18.9톤이어서 현대적 장비로도 이동이나 현파가 쉽지 않다.

사찰의 종루는 단순히 범종만 걸어두는 공간만은 아니다. 불교의식에서 중요한 네 가지 범구法具, 즉 불전사물佛前四物을 함께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불전사물은 범종梵鐘, 범고法鼓, 운판雲版, 목어木魚를 의미한다. 이 사물들은 새벽예불과 저녁예불, 사시공양巳時供養 때 사용한다. 범종은 우주의 모든 중생을 깨우고 구제하는 대자대비의 소리를 상징하며, 범고는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 울리는 북이다. 운판은 하늘과 허공을 떠도는 중생을 위해 울리는 범구이며, 목어는 강과 바다의 수중 생명들을 위한 의식구이다.

특히 운판은 부엌 근처에 걸어두어 대중에게 공양시간을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밥을 지을 때 운판을 세 번 쳤기 때문에 화판火板이라 불리기도 하고, 공양시간에는 길게 울리게 하여 장판長板이라고도 불렀다. 따라서 종루는 단순한 종각이 아니라, 불법 의식과 수행을 위한 중요한 범구들이 모인 공간으로서, 금당金堂과 가까워야 하며, 공양간과도 밀접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범어사 종루의 역사

범어사 종루도 심검당이 요사채로 쓰일 때는 심검당 부근인 대웅전 앞마당에 세워졌으나, 해행당이 요사채로 쓰이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진 되었다.

1714년 기록된 「미륵조상중수기彌勒彫像重修記」에 따르면, 범어사 종루는 1700년 명학대사明學大師가 '종각鐘閣'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범어사지梵魚寺誌』와 「선찰대본산범어사안내」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700년 보제루普濟樓 창건 공사 당시 작성된 「동래부북령금정산범어사보제루창건기東萊府北嶺金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에 따르면, 당시 범어사 중당中堂(사찰의 중심 마당)에 있던 종루가 낡고 위태로운 상태였으며, 결국 이를 헐고 그 자리에 보제루를 세웠다고 한다. 이를 통해 범어사 종루의 건립 연대가 1700년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¹⁾ 범어사 종루는 시대에 따라 위치와 구조가 변하였지만, 여전히 불전사물을 보관하며 사찰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추사체의 계승자, 성파 하동주

범어사 종루 현판 글씨는 성파 星坡 하동주 河東洲(1869~1943)가 남긴 작품이다.

그는 추사 김정희의 직계 제자는 아니다. 하지만 사숙제자 私塾弟子로서 직접적인 계보 속에서 가르침을 전수받지는 않았으나 추사 서첩을 연구하며 자신의 필체를 정립한 인물이다. 그 결과 추사 이후 가장 뛰어난 추사체 서예가로 평가받고 있다. 성파 하동주가 서체를 배운 추사 서첩은 소치 허련의 판각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당시 우의정 右議政이자 추사의 친구였던



영남루_성파 하동주

조인영의 조카 조병현 趙秉鉉이 1847년 거제로 유배되었을 때 추사 서첩을 가지고 내려와, 거제 유학자인 동록 東麓 정혼성 鄭渾性을 위시한 유림들과 교류하면서 성파의 부친 하지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유배길에 귀중한 서첩을 지니고 올 여유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성파의 서체는 추사의 강직한 필체를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감각을 담아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추사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만, 그의 서법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추사와는 차별화된 문질 文質과 서법의 격조 格調가 존재한다. 그의 글씨에는 고아 古雅한 멋과 동시에 강경 剛勁한 기세 氣勢가 배어 있으며, 회화적인 요소와 추상적인 미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글씨의 조형미 또한 변화무쌍하여 예술적인 개성을 확립한 독창적인 서예가로 평가받는다.

하동주는 1869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에서 태어나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50대 중반부터 추사체의 행서 行書에 주력하며 서예가로 명성을 쌓았다. 일생을 거제와 진주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였고, 그의 서예 정신은 진주 지역의 은초 隱樵 정명수 鄭命壽(1909~2001), 도연 陶然 김정 金正(1906~1999) 등에게 전수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범어사의 종루 외에도 범어사 「관음전 觀音殿」과 서울 종로 선학원 법당 「중앙선원 中央禪院」, 고성 옥천사 「백련암 白蓮庵」, 통영 용화사 「용화전 龍華殿」 「벽발산 안정사 碧鉢山安靜寺」 「명부전 冥府殿」, 그리고 진주 「월야산청곡사 月夜山靑谷寺」 「축석루 矗石樓」, 밀양 「영남루 嶺南樓」와 「아랑사 阿娘祠」, 통도사 극락암의 「원광 圓光」, 진주 의곡사 「대흥루」, 경남 사천읍성 「수양루 洙陽樓」 「보승관 保勝館」, 함안 원효암 「독성각 獨聖閣」 「칠성각 七星閣」 「산령각 山靈閣」, 함양 구천서원 「은성재 恩成齋」, 함천 신천서당 「류하정사 柳下精舍」 등이 전한다.

범어사의 두 현판 : 공간과 서체의 조화

범어사에 전하는 성파 하동주의 「종루」와 「관음전」 현판은 각각의 공간적 역할과 성격에 따라 서체의 특징이 다르게 표현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종루」 현판은 다섯 개의 판재를 세로로 이어 붙여 제작한 복판 腹板 형식으로, 외곽에는 테두리목만 결구된 모판형 현판이다. 특히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의 규모와 불전사물이 배치된 공간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교를 절제하고 굵고 강한 서체로 획 간의 결집성이 강하고 전체적인 중량감을 강조하였다. 이는 불전사물을 통해 예불과 수행을 행하는 엄숙함과 범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을 조형화시킨 서체라 할 수 있다.

반면 「관음전」 현판은 사변형(四邊形) 구조로, 한 개의 바닥 판재 외곽에 테두리목과 가로·세로 선대를 장식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서체에서는 파묵법(破墨法)이 강조되는 파임이 강한 서체로, 추상적인 회화미가 돋보인다. 이는 관음전이 기도와 명상의 공간이며, 무한한 깨달음과 초월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공간임을 피력한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종루」는 강건하고 절제된 서체로 범음이 온 우주에 퍼지는 공간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며, 「관음전」에서는 유연하면서도 강한 파임이 돋보이는 서체를 통해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불교적 진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성파 하동주가 단순히 글씨를 새긴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맞추어 서체를 조화롭게 배치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漢)나라 양웅(楊雄)의 『법언(法言)』에 “말은 마음의 소리요, 서예는 마음의 그림이다”라고 하였다. 성파 하동주의 글씨 또한 그가 살아온 인생과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인용구라 할 것이다. 범어사 종루에서 울려 퍼졌던 불전사물의 소리가 중생을 깨우듯, 그의 필체 또한 혼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범어사 종루



범어사 관음전

성파 하동주와 그의 예술적 교류

그는 만년에 효당 최범술 스님의 배려로 다솔사(多率寺)에 머물렀는데, 당시 다솔사는 효당을 포함해 만해 한용운, 김법린, 김범부 등이 활동한 '만당 비밀결사'의 구국운동 거점으로도 유명했다. 또한 청남 오제봉이 주지로 있던 진주 의곡사에 기거하면서는 당대 여러 문화예술인과 활발히 교류하며 영남 서예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화가 및 서예가로는 의재 허백련, 풍곡 성재휴, 운전 허민, 소정 변관식, 벽산 정대기, 일중 김충현, 여초 김응현, 산정 서세옥, 영운 김용진, 소전 손재형, 시암 배길기, 국초 김창국, 소음 현중화, 윤제 이규옥, 남농 허건, 청초 이석우, 겸여 유희강, 감암 송성룡 등이 있다. 또한 문학계에서는 파성 설창수, 구상, 조지훈, 장덕조, 박화성, 노천명, 모운숙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교류했다. 한편, 그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글씨를 의뢰받는 일이 많았고, 실수로 쓴 글씨도 종종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글씨는 파기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씨 값인 폐백(幣帛)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새로 써주지 않고 글자의 위치를 뒤바꾸어 관지를 하거나, 일부러 상하를 바꾸어 찍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일화는 성파 하동주의 기백 넘치는 성품과 타협하지 않는 강한 신념,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1 『범어사의 전각』, 범어사성보박물관, 2019, pp.90-91.

함내자 *K-Art, K-Artist*

미국 주요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의 희망을 발견하다

최근의 세계 경제 침체와 그 여파는 한국 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미술의 밝은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해외 주요 미술관의 한국현대미술 전시를 통해서이다. 필자는 근 2년간 세계 미술의 중심인 뉴욕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 변화와 희망을 체감했으며, K-pop에서 K-Art로 이어진 한국 미술을 향해 변화된 시선과 미국의 주요 미술관에서 선보인 한국현대미술 전시와 그 호응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온다.

최근 2년간 미국 주요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2023년 뉴욕타임스는 전면 기사로 “하반기(7~12월) 미국 주요 미술관 최소 5곳에서 한국전이 열릴 만큼 미국이 한국 미술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서양미술의 변방으로 이해 되어온 한국 미술이 이제 세계 미술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을 대변한다.

2023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미술관 내 한국관 개관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리니지[Lineages: Korean Art at The Met]’ 전시를 열어 12세기 철기부터 한국 근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작품 30여 점을 소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내의 아시아 국가관들은 주로 전통미술 혹은 민속문화 소장품을 선보이는 곳이었으며, 한국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전시는 한국의 12세기 미술과 현대미술 작품을 아우르며 ‘선[Line, 사물Things, 장소Places, 사람People]’의 네 가지 주제를 통해 굵직한 한국예술사의 맥락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전시에서 세계 미술계가 한국 미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것, 한국 현대미술이 새로이 가치가 매

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한국예술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보여주었다면,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과 필라델피아미술관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재조명하였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1960~70년대 한국실험미술’은 구겐하임미술관과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로, 6개의 소주제 아래 한국 실험미술 주요 작가 29명의 작품 99점과 아카이브 자료 31점을 소개했다. 한국의 실험미술을 해외에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함이 돋보이며, 4개월 동안 25만여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1960~70년대 당시 청년 작가들의 선언으로 시작된 한국의 전위적 실험미술의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보여주며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당시 한국 사회의 역사·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담았다는 점, 관련 연구논문과 당시의 주요 비평문, 선언문 등을 총망라한 국영문 전시 도록을 함께 발간했다는 점에서 전시를 통해 연구의 깊이가 드러난다.

‘1960~70년대 한국실험미술’은 구겐하임미술관에서의 전시 종료 이후 2024년 2월부터 미국 서부에 위치한 해머미술관에서 전시를 선보였다. 해머미술관은 미국 UCLA 대학 예술·건축대 소속으로, 고전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5만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대형 미술관이다. 전시 기간 한국 미술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LA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계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필라델피아미술관은 ‘시간의 형태: 1989년 이후의 한국 미술’ 특별전을 2023년에 개최했다. 필라델피아미술관은 미

국 7대 미술관의 하나로, 147년 역사를 지닌 이곳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린 것은 처음이었다. 약 1,000㎡(약 300평) 전시실에 작가 28명이 참여해 규모에서는 역대 최대 한국현대미술전으로 개최한 것이다. 전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격변기였던 1980년대 후반을 지나온 작가 28인의 집단적 기억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회화, 사진, 자수,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시각적으로 선보였다.

미술관의 역사와 권위가 높은 미국의 미술관들이 한국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능동적으로 전시하는 현상은 동시대 미술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연구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듯 미국 주요 미술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연구, 수집, 전시 등으로 재평가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주며, 한국 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시장 내에서 한국 미술작가와 한국 현대미술 작품의 시장 신뢰도를 구축하고 시장 가치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한국 미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반면, 최근 폰지사기 형태의 갤러리K 사태는 한국 미술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는 건전하지 못한 미술 인식과 현대미술의 이해 부족으로, 미술인들의 사기 저하와 미술 애호가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침체한 미술시장을 더욱 꽁꽁 얼게 했다. 그럼에도 시선을 높여 멀리 보자.

이제 한국 현대미술의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알려지고 있음을, 한국 현대미술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기로운 마음으로 한국 미술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의 흐름에 편승해 지역 무대에서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기 위한 예술적 실천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글_김지호 아트산 대표

김지호는 문화학박사, 부산현대미술관 종합기획수립 및 개관준비 연구 책임자, 전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미래의 미술관> 저자 등, 지역에서 미술을 둘러싼 이론, 기획, 행정 전반적인 경험을 토대로 현재 아트 프로모션 에이전시 아트산 [Art Promotion Agency Artsan] 대표로 예술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Art x Value x People을 엮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부산예술후원회 2025년도 제3차 정기총회

2. 4.(화) 오전 11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사)부산예술후원회(회장 강익구)의 2025년도 제3차 정기총회가 2월 4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임원 및 회원 32명이 참석해 2024년도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린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과 11월 부산고등법원 갤러리에서 개최된 'fun_인연'전에 관한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2024년도 결산보고 ▶2025사업계획_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2025사업계획_팬덤스타워즈공연 ▶워커 장군과 유엔 참전용사 추모회 ▶2025년 사업예산(안)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이날 상정된 2025사업계획_걷다가 만나는 버스

킹은 5월부터 12월까지 김해공항과 동아대학병원에서 총 24회에 걸쳐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 2025사업계획_팬덤스타워즈는 3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 출신 청년 성악가 4명의 무대를 지원한다. 워커 장군과 유엔참전용사 추모회는 4월 또는 5월 중에 부경대 내 워커하우스에서 치러진다.

예술문화 서포터즈 예담(예술을 담다) 3기 발대식 및 업무 협약 체결

2. 5.(수) 오전 11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와 부산예술회관은 전시, 공연 페스티벌 기획 및 홍보 등 예술문화 관련 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예술문화 예비 인재를 대상으로 예술문화 서포터즈 '예담(예술을 담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포터즈 예담 3기는 지난 1월에 모집 기간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했으며, 2월 5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활동내용은 ▶월 3건 콘텐츠 제작 및 홍보단원 활동 ▶부산예술회관 행사 홍보물 업로드 및 홍보 ▶부산예술회관 행사

전시·공연 등 현장 스태프 활동 ▶행사 현장 방문 취재 및 리뷰작성 ▶예술아카데미 및 각 협회 행사 홍보 등이다. 예담 참가자 전원에게는 매월 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산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공연·전시 초대권이 지급된다.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서포터즈 활동 수료증 발급과 우수활동자를 대상으로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에는 이집트 출신의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도 포함돼 있다.

부산무용협회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및 제20대 신임 회장 남선주 선출

2. 1.(토) 오전 10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무용협회가 2월 1일 부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 7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갑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도전과 성과를 돌아본 뒤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차기 임원진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손영일 이사의 인사말과 이종윤 감사의 ▶2024년도 사업실적 보고(총 11개 행사) ▶2024년도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 결산 보고 및 승인 건이 통과된 후 제20대 임원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현장에서 추천으로 부지회장 후보 4명, 감사 후보 3명이 출마했으며, 제20대 신임 회장에 남선주 후보가 선출됐고, 부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및 제32대 신임 회장 김두진 선출

2. 7.(금) 오후 4시 아바니 센트럴 호텔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는 2월 7일 아바니 센트럴 호텔에서 제64회 정기총회 및 회장 아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광희, 부산건축가회 임원진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32대 신임 회장으로는 김두진 후보(주)SJ C&C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선출됐다. 김두진 회장은 내년에 예정된 대한민국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쏟아, 부산이 글로벌 디자인 도시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포부를 밝혔다. 제18회 부산 건축상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건축가상에 강기표

대표(건축사사무소 아체 ANP)가 선정됐고, 공로상에 김종석(전)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 정달식(부산일보 논설위원), 김백수(KNN 본부장)가, 감사패는 허윤홍(GS건설 대표이사), 윤영진(롯데건설 창원롯데캐슬 하버팰리스 현장소장), 양진일(주)참콤 대표이사, 한태곤(주)선포탈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정정합니다〉

예술부산 2월호(VOL.236) 예서제서_예술의 흔적 19p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연극/연출 이선규'를 '이성규'로 바로잡습니다. 작가님의 성명 표기가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고,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예술부산』이 되겠습니다.

예술부산 2월호(VOL.236) 예인탐방 46p 내용 중 '앞으로 4년간 부산꽃예술작가협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앞으로 2년간'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시네바움 3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10일은 미술평론가 최석태가 '간송 미술관과 전형필'로, ▷17일은 '리움 미술관과 이건희 컬렉션'으로, ▷24일은 현대음악 작곡가 김보현이 '수학과 현대음악'으로, ▷31일은 영화평론가 문형근이 '시네마 앤노운 : 블랙-아웃(2020, 10min)'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감독 김영광도 참석한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가,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하이쿠 산책'도 준비되어 있다. 교대역 인근의 시네바움에서 인문학 강좌를 들어보길 추천한다.

문의 010-2774-3455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클래식음악 콘서트 꾸러기 음악회 - 행진 앞으로

3. 1.(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꾸러기 음악회는 공연 입장 연령 제한을 하지 않는다.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와 유아 가족을 위한 순수 클래식 음악회로 어린이와 부모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본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서곡인 「경기병 서곡」으로 시작해서 「라데츠키행진곡」, 「터키행진곡」, 「비엔나행진곡」 등과 같은 고전음악과 「아빠 힘내세요」 같은 동요도 감상할 수 있다. 2부도 서곡인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포함해서 「위풍당당행진곡」, 「카르멘행진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젓가락행진곡」 등 다양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2)547-9851



박주호 개인전 Awareness 바라봄

1. 10.(금) ~ 3. 2.(일)
카린갤러리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망라하며 신작으로 이어지는 6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된다. SPACE#1에는 사발에 담긴 쌀, SPACE#2에서는 직관적인 감정을 표현한 색면추상, SPACE#3에서는 화면에 쌀이 가득 채워진 100호 7점의 대작을 선보인다. 밥 시리즈는 2006년경 시작되었다. 여느 날과 똑같은 어머니의 밥에서 정성과 사랑을 보았고, 쌀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것이 은유하는 마음을 그려왔다. 메시지를 함축하거나 화면 앞에서 직면한 에너지를 색감과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했고, 이것이 이번 신작인 색면 추상으로 이어졌다.

문의 051)747-9305



바다를 품다

2. 26.(수) ~ 3. 4.(화)
소비지갤러리

유리로 프로젝트는 현직 작가와 스타트업 작가의 합작으로 시작된 비영리 단체로, 스테인드글라스 전시의 다양한 길을 제시할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여러 작가의 표현을 유리 전시회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수많은 전시회를 경험한 작가부터 전시에 처음 참여하는 신진 작가까지, 25명의 작가가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주제에 맞는 하나의 단체 작품과 각자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개인작까지, 전부 온전히 유리로 연출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바다'이다. 광안리 근처에 자리한 소비지갤러리에서, 유리공예 작품이 담겨있는 작은 바다를 감상해 보길 추천한다.

문의 070-8287-3835



정해민 초대전 맛물리어 반짝이는

2. 11.(화) ~ 3. 6.(목)
아리안갤러리

정해민은 자신이 수집한 이미지와 예전에 직접 그렸던 그림 이미지의 일부를 컴퓨터에서 조작하고, 그것을 캔버스 위에 '디지털 페인팅 Digital painting'한다. 작가는 회화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대략 2010년부터는 디지털 방식을 통해 '회화의 조건'을 발견하고자 하였고, 현재 10년 넘게 디지털 페인팅을 실험하고 있다. 작품을 제작할 때 그는, 단지 "언제나 있었던 이미지가 나에게 온다"라고 표현한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이미지를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문의 051)757-2130



정비파 특별 목판화전 木皮에 나투신 천년의 미소, 석굴암

2. 5.(수) ~ 3. 8.(토)
레오앤갤러리

목판화의 대가인 정비파 작가의 작품 38점이 전시 중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드물게 전시되는 '석굴암' 시리즈이다. 대작인 본존불상은 실제 크기의 2/3로 목판木皮에 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작품이다. 앞으로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마지막 고별전이 될 듯하다.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정비파 작가의 대작들을 강서구에 위치한 레오앤갤러리에서 만나보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판화가 정비파 작가의 노작에서 불교의 향기와 목판의 섬세함으로 전해지는 석굴암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51)941-7004



세일즈맨의 죽음

3. 14.(금) ~ 15.(토)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2시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와그너 상사에서 삼십 년 넘게 일한 세일즈맨 윌리 로먼. 그는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세일즈맨으로서 쌓은 실적과 전도유망한 두 아들 비프, 해피 그리고 아내 린다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불황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그는 결국 가장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으로 도피한다. 출연진으로는 박근형, 손병호, 손숙, 예수정, 이상윤, 박은석 등이 있다. 작품은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허상과 인간성을 탐구한다. 그리고 인간 소외와 붕괴를 세밀하게 그려 내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문의 1588-7890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

3. 22.(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0세의 전설’ 제갈삼의 작품을 박성완의 지휘와 김윤선의 해설로 만난다.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예술가곡 6가지에는 「만월대», 「파랑새», 「바위», 「내 구름이 되거든», 「보리피리», 「내가 가던 그날은」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4개의 합창곡 「부슬비», 「푸른 산 저 너머로», 「백제의 옛서울», 「삼천리 고운 강산」이 준비돼 있다. 공연 참여자로는 백재진, 조현선, 김유섬, 김지호, 안세범 등이 있다. 주최·주관은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맡는다.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39세 이하로 부산 소재의 음대를 졸업했거나,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음대 졸업생으로 구성되며, 매년 50~55인이 새롭게 선발된다.

문의 010-5053-1718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3. 7.(금) ~ 8. 31.(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2시, 5시 / 일 오후 2시
KNN씨어터

2024년 일본 서점 대상 번역 소설 1위를 수상한 황보름 작가의 소설이 뮤지컬로 찾아온다. 주인공 영주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동네 휴남동에 서점을 오픈한다. 처음에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으나, 묘한 휴남동 서점의 분위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 영주는 서점 안 작은 카페를 열며 바리스타를 고용하고 점점 자기 삶에 활기를 찾게 된다. 대부분 힘겨운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휴남동 서점을 통해 잠시나마 휴식을 찾고 간다. 등장인물처럼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뮤지컬 속 휴남동 서점에서 잠시 쉬어가길 바란다.

문의 051)664-8400



청색 머물러 최영애 / 수필과비평사

작가는 이 수필을 ‘대자연이 들려준 받아쓰기입니다.’라고 한다. 책은 표지부터 첨부된 삽화까지 온통 청색으로 가득하다. 작가의 다른 수필집인 『노랑나비』, 『붉은 녹』에 이어서 『청색 머물러』도 ‘청색’이라는 하나의 색채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색 머물러』는 청색의 바다, 그 바다에서 일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바다의 청색은 아버지의 색인 셈이다. 책은 총 4부로 나뉜다. 1부는 작가가 낯선 길에서 느낀 감정의 변화를 신호등 색에 비유해 표현한 「버튼을 누르다」로 시작한다. 2부는 「애완견 유치원 반장 선거」와 작품의 제목인 「청색 머물러」가 포함돼 있다. 3부는 「부네치아에 가다」 외, 4부는 「애완어」로 시작해서 「암초꽃」으로 마무리한다.



두 개의 이름 목걸이 윤옥자 / 육일문화사

작가는 정년 퇴임까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 이 책은 교직 생활 당시의 추억,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교직 생활과는 관련 없는 작가의 과거 추억까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1부의 시작을 여는 「너희들을 두고 나만」에는 작가가 교장으로 있었던 신평초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꿈나무들을 향한 격려와 염원이 함께 드러나 있다. 1부에서는 12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부에선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담긴 「작은 하느님」을 포함해서 10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3부는 12가지 이야기로 구성돼 있는데, 3부의 시작을 알리는 「달집에 불이야」는 작가가 다대포 해수욕장의 달집태우기를 보면서 했던 과거 회상을 담았다. 4부는 11가지, 5부는 12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비 오는 날의 산책 강영옥 / 세종출판사

『비 오는 날의 산책』은 작가의 첫 번째 수필집인 『어느 봄날의 택배』에 이은 두 번째 수필집이다. 작가는 자기 인생의 편린을 거두어 수필집에 담담히 눌러 담아냈다. 1부는 딸과 함께 걷기 대회에서 느낀 행복을 담아낸 「걸어서 행복한 하루」를, 2부에서는 「5월의 어떤 갯 날」을 볼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꽃피우듯, 함께 힘든 과거를 겪었던 동생의 ‘진급’이란 좋은 소식에 대한 감상을 담았다. 희소식을 들은 날을 비 온 후 갯 날보다 멋진 날로 표현한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단절된 세상에 내린 비는 작가의 마음에도 단비를 내렸다. 고요한 세상에 내리는 빗소리는 과거 추억 속의 행복을 되새기게 해준다. 그런 비에 대한 작가의 고마움이 담겨 있다. 4부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도여행에서 생긴 일」까지 이어진다.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 표4 (뒷표지) *마감!*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선정가능

수강기간

2025년 1월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4206-9140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4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4	통기타교실	20명	수) 11:00-12: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5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3:00-14: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10	가곡교실	20명	수) 14:30-16: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11	서양화 교실	2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3개월 15만원
12	사진아카데미(초급반)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4개월 12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